

코스피	코스닥
2579.48	729.59
(+5.68)	(+6.78)
금리 (미국 9년)	환율 (원·달러)
2.281	1397.85
(+0.028)	(-0.15)



“AI육성·규제혁신 등 성장추진 동력 집중 지원해 달라”

이재명 만난 경제 5단체장

韓日 경제협력 통해 ‘물세터’ 도약
해외인재 유입·서비스 수출 확대
정년 연장 등 고용제도 개편 건의
추 “민간역량 믿고 정부 지원할 것”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SK그룹 회장)을 비롯한 경제 5단체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를 만나 인공지능(AI) 산업 육성과 규제 혁신 등 성장 추진 동력 분야에 집중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대한상공회의소(상의)와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한국무역협회(무협),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 등 경제5단체는 서울 중구 대한상의회관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초청 경제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경제5단체는 조기 대선으로 인한 촉박한 선거 일정을 고려해 이번 간담회에 공동으로 참여했다.

이번 간담회는 이재명 후보의 정책 비전을 청취하고, 대내외 불확실성 극복을 위한 경제계의 목소리를 이재명 후보에게 직접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과거 경제단체 주관의 대선후보초청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경제5단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기념 촬영 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장,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이재명 후보,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류진 한국경제인협회장. /손진영 기자 son@

행사는 후보자의 비전을 듣는 강연회에 불과했지만, 이번에는 반대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계의 목소리를 대선 후보에게 전달했다. 최태원 대한상의회장은 경제단체별 제언 시간에 ▲한·일 경제협력 ▲‘해외인재 유치’ ▲서비스 수출 확대 등 세 가지 성장모델을 제안했다.

최태원 회장은 “한·일 경제협력을 통해 시장의 크기와 목소리를 키워야 한다”며 “한국과 일본은 현재는 글로벌 질서를 따라야 하는 룰테이커(rule-take

r, 규칙을 따라가는 나라)의 처지이지만 경제협력으로 더 큰 경제권으로 도약한다면 룰세터(rule-setter/규칙을 만드는 나라)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수소와 탄소포집·활용·저장(CCUS) 등 에너지 및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한일 경제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해외 인재유치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인구부족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해외 인재를 유치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최 회장은 “우리 인구의 10%인 500

만명의 해외인구를 유입하면 생산 인구가 늘어나고 내수 기반을 넓히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비스 분야 수출과 관련해선 상품수지만 갖고 경제를 지탱하기 어렵고, 본원 소득수지도 수익성이 크게 나도록 ‘전략적 해외투자’가 중요하다”며 “K-컬처를 체계화·산업화해 부가가치를 높이고 지식재산권 수출에도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주 4.5일제 시행 논의 ▲재계의 규제 완화 요구 ▲법정 정년 연

장 등을 제언했다.

이에 이재명 후보는 “경제를 살려달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 안타깝다”며 “가장 중요한 일은 민생이고, 민생의 핵심은 경제 살리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간 영역의 전문성과 역량을 믿고 정부는 이를 뒷받침 하는 역할”이라며 “전통 산업들도 시대의 변화에 맞춰 산업 전환에 충실해야 하고 정부가 이를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후보는 “정년 연장 문제는 노사 쌍방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에서 산업, 기업마다 상황이 다르니 차등을 두고 단계적으로 하면 된다”고 말했다. 또 규제완화와 관련 “수요자 입장에서 뭐가 필요한지를 여러분이 제시해 달라”며 “행정 당국 입장에서 자기들이 편해지려고 만든 규제가 많은데 수요자, 현장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경제5단체는 성장추진 동력(AI육성, 규제혁신, 에너지정책, 탄소중립, 기업가정신), 새로운 산업의 이식(신사업, 서비스산업, 스케일업), 경제영토확장, 기본 토양 조성 및 활력제고(자본·금융, 인력, 노동·안전, 산업재생) 등 4대분야 14개 아젠다를 담은 제언집을 이 후보에게 전달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metroseoul.co.kr

CJ제일제당, 日 냉동만두 공략 본격화

1000억 투자, 만두 생산기지 신설
9월부터 ‘비비고 만두’ 생산·공급

CJ제일제당의 글로벌 식품 사업 확대 전략이 본궤도에 오른 가운데, 미국·유럽·호주에 이어 일본 현지에 대규모 식품 생산기지를 신설하며 ‘글로벌 리딩 컴퍼니’ 도약에 속도를 내고 있다.

CJ제일제당은 일본 치바현 키사라즈시 ‘카즈사 아카데미아 파크’ 내 축구장 6개 크기 넓이의 부지(4만2000㎡)에 약 1000억원을 투자해 연면적 8200㎡ 규모의 만두 생산공장을 신축한다고 8일 밝혔다. 오는 7월 완공 후 9월부터 ‘비비고 만두’ 생산을 시작해 일본 전역에 공급될 예정이다.

이번 투자는 급성장 중인 일본 냉동만두 시장을 본격 공략하려는 전략적 포석이다. CJ제일제당에 따르면 일본 냉동만두 시장은 연간 1조 1000억원 규모로 그중 ‘비비고 왕교자’와 유사한 교자류 제품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신공장에서는 기존 주력 제품 외에도 조리 편의성을 강조한 신제품 출시가 예



CJ제일제당의 일본 치바 신공장 조감도

/CJ제일제당

정되어 있어, 제품군 확장을 통한 시장 선점이 기대된다.

이재현 CJ그룹 회장은 최근 일본을 방문해 “현지에서 다시 뜨거워지고 있는 한류 흐름은 K-푸드 확산의 결정적 기회”라며, “현지화 전략과 글로벌 인프라 구축에 속도를 내 글로벌 리딩 컴퍼니로 도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J제일제당은 일본 시장에서 ‘비비고 만두’ 외에도 냉동김밥과 소스 제품 등을 이온(AEON), 코스트코, 아마존, 라쿠텐 등 유통 채널을 통해 판매 중이다. 특히 일본에서 최초 출시된 ‘비비고 김밥’은 2023년 한 해 동안 약 250만 개가 판매되며 큰 반응을 얻었다. 하반기부터는 치바 공장의 가동을 통해 생산

역량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CJ제일제당의 해외 식품사업은 지난 5년간 큰 폭으로 성장했다. 2019년 3조 1540억원이던 해외 식품 매출은 2024년 5조 5814억원으로 77% 증가했으며, 전체 식품 매출 중 해외 비중도 같은 기간 39%에서 49%로 확대됐다.

지난해 해외 매출은 역대 최대 수준으로 지난해 주력한 ‘K-푸드 신영토 확장’이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다. 북미, 유럽, 호주 등 주요 권역에서 성장을 이어갔고, 글로벌전략제품인 김치(38%), 냉동밥(22%), 만두(18%)의 해외 매출이 크게 증가했다.

〈2면에 계속〉

/신원선 기자 tree6834@

LG전자, 인도서 국민 브랜드 다진다

스리시티서 新가전공장 착공
신흥시장 수출 거점으로 활용

LG전자가 인도에서 세 번째 가전공장 건설에 착수했다. 현지 생산력을 강화해 인도 ‘국민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고, 인접국까지 공급망을 넓히겠다는 전략이다.

LG전자는 8일(현지시간) 인도 남동부 안드라프라데시주 스리시티에서 신공장 착공식을 열었다. 총 6억달러(약 8380억원)가 투입되는 이 공장은 부지 100만㎡, 연면적 22만㎡ 규모로 조성된다.

스리시티 공장의 연간 생산능력은 ▲에어컨 150만대 ▲세탁기 85만대 ▲냉장고 80만대 ▲에어컨 컴프 200만대 수준이다. 2026년 말 에어컨 생산을 시작으로 2029년까지 세탁기·냉장고·에어컨 컴프 생산 품목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LG전자는 이번 투자를 통해 인도 내 ‘국민 브랜드’로서의 입지를 강화하는 동시에 아시아, 중남미, 중동·아프리카 등 ‘글로벌 사우스’로 불리는 신흥시장 수출 거점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인도는 세계 1위 인구 대국이자 경제성장률이 높고 가전 보급률이 낮아 성장 잠재력이 큰 시장이다. LG전자는 기존 노이다·푸네 공장만으로는 수요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남부 거점인 스리시티에 추가 생산기지를 구축하게 됐다.

스리시티는 첸나이 인근 인도양 연안에 위치해 수출에 유리하고, 남부 지역 공급에도 적합하다. 프렌치door 냉장고, 드럼 세탁기 등 고부가가치 제품 중심으로 생산을 확대할 예정이다.

LG전자는 채식 위주 식문화에 맞춘 ‘컨버터블 냉장고’, 전통의상 ‘사리’ 전용 세탁 코스 등 현지 생활양식에 맞춘 제품도 강화하고 있다. 브랜드샵 700여곳, 서비스센터 900여곳, 12개 언어 상담 등 서비스 인프라도 갖췄다.

조주완 LG전자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인도는 2027년 세계 3위 경제대국이 될 것”이라며 “제조, 혁신, 인재개발 등에 대한 지속적 투자를 통해 인도가 세계 경제 핵심 축으로 도약하는 여정에 기여할 수 있어 자랑스럽다”고 강조했다.

/이혜민 기자 hyem@

메트로 韓줄뉴스



▲민주 “국민의힘, 한덕수 옹립 위해 강제 단일화 역모… 막장 사극극”
▲김상욱, 국회 탈당 선언… “이재명·이준석 만나고 싶다”
/사진 뉴시스

▲정청래 “‘조희대 특검법’ 발의해 내일 처리… 탄핵도 살아있는 카드”
▲김민석 “한덕수, 조순 케이스 될 것… 후보 등록 못하고 주저앉을 가능성 커”

▲한동훈, 당권 재도전 시사 “실 생각 없다… 계속해 보겠다”
▲이주호 대행, ‘윤석열 채널A 사건 수사방해’ 증언 검사장 징계 재가

트럼프, AI반도체 수출정책 변경 정부-업계 공조, 전략마련 시급

美 ‘국가 등급별’ 통제정책 폐기
말레이시아·태국 규제대상 가능성
삼성·SK, 수출전략 재검토 불가피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바이든 정부 시절 도입된 ‘국가 등급별’ 인공지능(AI) 반도체 수출 통제 정책을 폐기하고, 새로운 수출 통제 규칙 마련에 착수했다. 특히 말레이시아, 태국 등 중국으로 미국 반도체를 재수출한 국가에 대한 통제 강화도 포함될 예정이어서 한국 반도체 업계에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다.

8일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7일(현지시간) “기존 규제는 복잡하고 관료적이며, 미국의 혁신을 저해한다”며 “보다 단순하면서 강력한 규정으로 대체할 것”이라고 밝혔다. BIS는 이달 15일 발효 예정이던 규정을 철회하고, 기존 규제를 엄격히 집행하는 동시에 새로운 수출통제 규칙을 설계 중이다.

기존 규칙은 국가를 ‘동맹국’, ‘일반국’, ‘우려국’으로 등급화해 차등 통제하는 방식이었다. 한국은 동맹국으로 수출 제한이 없지만, 일반국에 포함된 말레이시아·태국 등은 우회 수출 루트로 지목돼 새 규제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한국 반도체 업계는 미·중 기술 패권 전쟁의 한가운데 있어 또다시 불확실성에 직면했다. 이 같은 미국의 정책 선회로 ‘샌드위치 신세’가 될 위기에 놓인 것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은 미국과 중국 모두에 막대한 수출 의존도를 보이고 있어 이번 조치가 실제 시행될 경우 수출 전략 전면 재검토가 불가피하다.

정부도 즉각 대응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미국 정부에 공식 의견서를 제출하고, “한국산 반도체와 제조장비는 미국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며 특별 고려를 요청했다. 정부는 수출 제한이 미국 내 AI 인프라 구축 및 한국 기업의 미국 투자에도 악영향

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번 조치는 미국이 지난달부터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반도체·장비 수입의 안보 영향을 조사하고 있는 와중에 나왔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중동 순방을 앞두고 일부 중동 국가에 대한 수출 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 통제 정책이 외교·통상 협상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난해 한국의 대미 반도체 수출액은 107억 달러로, 전체 대미 수출의 8.3%를 차지했다. 같은 해 대미 반도체 무역흑자(78억 달러)는 한국 전체 대미 무역흑자의 14%에 달한다. 하지만 지난달 대미 반도체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31.0% 급감해 업계의 위기감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제는 기술경쟁이 아닌 외교·안보 전략 속에서 반도체 수출을 바라봐야 한다”며 “미국 중심 공급망 전략에 어떻게 균형 있게 대응할지 정부와 업계간 공조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혜민 기자 hyem@metroseoul.co.kr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7일 체코 프라하 총리실에서 페트르 피알라(Petr Fiala) 체코 총리와 기념촬영하고 있다. 한-체코 양국은 산업·에너지·건설·인프라·과학기술 등의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뉴시스

“韓-체코, 원전건설 넘어 제3국 공동진출도 협력”

‘원전산업 협력 약정’ 체결
안덕근 산업장관, 체코서 간담회
“체코 자산 활용 글로벌시장 진출”

체코 신규 원전 건설 본계약 체결은 미뤄졌으나, 한국과 체코 양국은 원전 협력을 비롯해 첨단분야 경제협력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양국은 특히 체코 두코바니 원전 건설 외에도 제3국 원전 시장 공동진출에도 협력한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7일(현지시간) 체코 프라하 리히텐슈타인 궁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피알라 체코 총리가 임석한 가운데, 불ček 체코 산업통상부 장관과 ‘한-체코 원전산업 협력 약정(Arrangement)’을 체결한다”며 “두코바니 신규원전 건설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비롯해 제3국 공동진출에 관해서도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안 장관은 특히, 체코와의 제3국 원전 공동진출이 국내 원전업계의 글로벌 진출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봤다. 안 장관은 “우리나라 원전업계는 국내에서 신한울 2기를 짓고있고 원전 추가 건설 2기를 더해 국내에서 4기에 방패장 만들어야하고 체코에 2기, 국제시장에도 얘기하고 있는게 더 있다”며 “이렇게 하다보면 사실 국내 (원전)생태계가 다 커버하기 힘든 상태”라고 말했다. 이

어 “체코에 있는 두산스코파워터빈 등 자산을 활용하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는 우군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 장관은 “오늘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해 최종 계약에는 이르지 못해 아쉬운 마음이 크다”면서도 “비운 뒤 땅이 굳듯이 어려움을 함께 겪고 이겨내는 과정에서 양국 간 신뢰관계는 오히려 더욱 굳건해졌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속한 시일 내 본계약까지 마무리할 수 있도록 체코측과 긴밀히 소통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 장관은 본계약 체결의 발목을 잡은 프랑스 전력공사(EDF)의 행정소송 제기 건과 관련해 “우리가 우선협상대상으로 선정된 당시에 피알라 체코 총리가 ‘한수원이 모든 면에서 다 압도했다’라고 했다”며 “200명 넘는 전문가가 상당히 오랜기간 정밀하게 평가했고 트집을 잡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절차적인 투명성 같은 부분에서도 조금도 의심할 부분이 없다”며 “법적인 문제 이런건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당황스러운 일이 발생한게 있지만 절대 무산된다거나 이런게 아니다”며 “잠깐 절차적으로 지연되는 부분이고, 지연된 게 시간을 소비한게 아니라 한국 원자력 산업계 신뢰를 쌓는 계기로 만들려 하고있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인프라 투자, 세계 식품시장 리딩기업 도약할 것”

》1면 ‘CJ제일제당, 日...’서 계속

해외 생산 인프라는 꾸준히 확대중이다. 유럽에서는 헝가리 부다페스트 인근에 ‘K-푸드 신공장’을 착공해 2026년부터 유럽 전역에 만두를 공급할 예정이며, 미국 사우스다코타 수폴스(Sioux Falls)에는 2027년 완공 목표로 북미 최대 규모의 아시안 푸드 제조 시설을 건설 중이다.

현재 CJ제일제당은 미국에서 인수한 슈완스 공장을 포함해 총 20개 식품 생산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일본 내

에서는 2019년 인수한 ‘교자계획’을 포함해 4개의 만두 생산시설을 가동 중이다. 이 외에도 독일, 베트남, 호주 등 글로벌 생산거점을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있다.

CJ제일제당 관계자는 “선제적인 현지 생산 인프라 투자를 통해 K-푸드의 글로벌 저변을 넓히고, 세계 식품 시장에서 확고한 리딩 기업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CJ제일제당은 지난해 북미에서 4조 7138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 북미 시장 점유율 1위인 비비고 만두는 2

위 브랜드와 3배 이상 차이 나는 선두를 유지했으며, 슈완스의 대표 피자 브랜드 ‘레드바론(Red Baron)’ 또한 1등 지위를 한층 공고히 했다. 유럽은 처음으로 연간 매출이 1000억원을 돌파했다. 프랑스, 스페인 등 신규 국가로의 진출을 가속화하는 한편, 유럽 대형 유통채널에서 판매 제품을 확대한 점이 주효했다. 호주에서는 울워스에 이어 콜스, IGA에 입점하는 성과를 이루며 현지 주요 유통업체 매장 수의 80%에서 비비고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상상 그 이상 만성!

미래기술의 혁신과 문화의 다양성이 어우러지는
안성맞춤도시 안성

설레이는 변화가 기대되는
이젠, 안성입니다.

City of Masters
안성맞춤도시 안성

건설사, 순차입금 늘고 영업지표 악화… 재무건전성 ‘빨간불’

부동산시장 장기 불황

4년새 매출채권 84% 급증
중견 건설사 잇따라 법정관리
업체, 유동성 위기 전이 우려

건설사들이 ‘4월 위기설’은 넘겼지만 부동산시장 장기 불황으로 재무건전성에 경고등이 켜졌다. 이미 올해 들어 중견 건설사를 중심으로 법정관리 신청이 잇따른 가운데 공사 미수금 등이 가파르게 늘면서 유동성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8일 한국신용평가에 따르면 등급을 부여하고 있는 13개 건설사들의 2024년 말 기준 합산 차입금은 8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2021년까지 거의 없었던 순차입금은 2022년부터 급증했다.

반면 이들의 영업이익률(총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 비율)은 2021년 6.7%에서 2024년 0.4%로 급격히 악화됐다. 기업 영업활동의 수익성과 효율성을 나타내는 지표가 나빠진 것.

건설사 차입금이 늘어난 것은 공사미



수금과 미청구공사 등 매출채권이 주요 원인이다. 2024년 시공능력순위 1~50위 건설사 합산 매출채권(미청구공사 포함, 삼성물산, 한화 등 제외)은 작년 말 기준 45조7000억원으로 2020년 말 대비 84%나 급증했다.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21년 28%에서 2024년 45.7% 수준까지 높아졌다.

전지훈 한신평 연구위원은 “국내 주택과 분양 시장은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 기조 하에서 올해 들어에서도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며 “분양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공사비가 상승과 해외사업 등의 예정원가 조정으로 건설사들의 수익성이 하락하고 매출채권을 비롯한 운전자금이 누적되면서 재무부담 또한 확대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분양경기 부진이 장기화되고 있는 것이 문제다.

지방 주택과 비주택을 중심으로 분양실적이 저조한 현상이 늘고, 이미 착공한 현장 가운데 분양일정을 연기하거나 후분양으로 전환하는 곳도 나오면서 분양수입금을 기반으로 하는 사업장의 공

사대금 회수가 지연되고 있다.

전국 미분양 주택수는 7만호 안팎에서 줄어 들지 않고 있으며, 매출채권 회수 지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준공후 미분양은 올해 2월 말 기준 약 2만4000호에 달한다. 미분양으로 쌓인 매출채권은 향후 손실로 연결될 수 있다.

건설사들의 주택사업 의존도가 높아진 상황에서 분양경기가 좋을 때 착공했던 주택사업장 상당수가 작년 하반기부터 올 상반기에 준공한다. 공사비 상승으로 세대당 공사원가가 늘고, 도급액 증액 과정에서 발주처와의 공사비 분쟁으로 대금회수가 지연되는 것도 영향을 미쳤다.

한신평이 BBB- 이상 16개 건설사의 분양형 진행사업장을 대상으로 매출채권 회수가능성을 분석한 결과, 통상 공사대금 회수가 가능한 분양률 75%에 도달하지 못한 현장이 약 16%였다. 착공 이후 분양을 개시하지 않은 분양 전 현장까지 포함하면 26%에 달한다. 준공 이후 단기간 내에 회수하지 못할 것으로 추정되는 매출채권 미회수 익스포

저는 5조1000억원에서 최대 8조8000억원이다. 작년 말 자기자본 대비 12.8~21.8%에 달한다.

특정 건설사가 아니라 건설업 전반에 경고 신호가 켜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하도급대금의 법정 지급기일(60 일)을 초과해 기성을 지급한 사례가 시공능력평가상위권 건설사에서도 증가하고 있다. 단순한 지급 지연을 넘어 종합건설사의 유동성 한계가 협력업체까지 전이된 것으로 보인다.

유진투자증권이 시공능력평가 100위 업체를 대상으로 통합 스트레스 테스트 민감도를 분석한 결과, 한양산업개발(91위)과 태영건설(24위)이 높았다. 두 곳 모두 운전자본과 우발부채 스트레스 항목에서 민감도가 컸다. 스트레스를 반영한 순차입금비율이 100%를 초과하는 기업은 24개사로 나타났다. 이 중 200%를 초과한 기업은 한양산업개발, 태영건설, 대보건설(53위), 대방산업개발(77위), 동원건설산업(65위), 일성건설(56위), 이수건설(85위), 롯데건설(8위) 등이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롯데시네마-메가박스 합친다… 업계 1위 전망

롯데그룹-중앙그룹 MOU 체결 신설 법인 공동 경영체제 운영

롯데컬처웍스와 메가박스중앙의 합병 추진으로 국내 멀티플렉스 시장의 판도가 크게 요동칠 전망이다. 두 기업이 손잡을 경우 CGV를 제치고 국내 최대 멀티플렉스로 자리매김하게 되며, 향후 투자·배급 구조의 재편 여부에 따라 K-콘텐츠 산업 전반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롯데그룹과 중앙그룹은 영화관 운영 및 영화 투자·배급 사업을 영위 중인 롯데컬처웍스와 메가박스중앙의 합병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롯데컬처웍스는 롯데쇼핑이 86.37%, 메가박스중앙은 중앙그룹의 콘텐츠리중앙이 95.98%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계열사다. 합병 후 신설 법인은 양사 공동 경영 체제로 운영되며,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를 거쳐 출범한다.

이번 결정은 코로나19 이후 가속화된 관객 감소, 흥행작 부재, 제작 축소 등으로 인한 영화 산업 위기 속에서 경쟁력을 회복하려는 전략이다. 롯데와 중앙은 ▲극장 운영 효율화 ▲콘텐츠 투

자 확대 ▲신규 사업 추진 등에서 시너지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합병 법인은 운영과 마케팅 역량을 통합하고, 중복 비용을 줄여 수익성을 높일 방침이다. 더불어 외부 투자를 적극 유치해 재무건전성을 강화하고, OTT와 차별화되는 특별관 등 고객 체험 중심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콘텐츠 측면에서도 각 사가 보유한 지식재산(IP)과 제작 인프라를 기반으로 고품질 신작을 선보이고, 수익을 다시 시장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겠다는 포부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시내버스 노조, 28일 동시 총파업 예고

서울, 부산, 인천, 경기 등 22개 지역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산하 시내버스 노조가 노사교섭 결렬 시 오는 28일 동시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8일 서울역 앞 버스환승센터 정류장에 버스들이 줄지어 서 있다.

서울, 부산, 인천, 경기 등 22개 지역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산하 시내버스 노조가 노사교섭 결렬 시 오는 28일 동시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8일 서울역 앞 버스환승센터 정류장에 버스들이 줄지어 서 있다.

/손진영기자 son@

행복한농어촌, 함께하는 KRC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을 위해 117년을 달려온 열정으로
늘 농어민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KFC 한국농어촌공사

한국, 1분기 성장률 OECD ‘꼴등’… 내년 전망도 ‘회의적’

38개 회원국 중 19개국 GDP 발표
GDP -0.2% 감소, 최하위 기록
IMF, 내년 성장률 1.4%로 하향

韓·헝가리·美 등 3곳만 역성장
“추경안 신속 집행 필요성 커져”

우리나라는 올해 초반부터 경제성장을 비교에서 바닥권을 헤매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절반이 1분기 성장률을 발표했는데 이 중 꼴찌에 자리했다.

8일 OECD 홈페이지 내 집계에 따르면 이날까지 총 38개 회원국 중 19개국이 지난 1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발표했다. 한국 GDP는 직전 분기에 비해 0.2% 줄어들었다. 중간집계에서 동일한 마이너스(-) 0.2%를 기록한 헝가리와 함께 공동 최하위에 이름을 올렸다.

19개국 중 역성장은 한국·헝가리와



프랑스 파리 소재 경제협력개발기구 본부.

/OECD 홈페이지 갈무리

미국(-0.1%) 등 세 곳뿐이었다. OECD 평균이 아직 산출되지 않은 가운데 한국은 유럽연합 평균(+0.3%)보다 0.5%포인트(p) 낮았다. 또 유로존국가 평균(+

0.4%)과의 격차는 0.6%p에 달했다.

이에 반해, 1개 분기 성장률이 0.5% 이상인 나라도 4곳이나 있었다. 아일랜드는 한 분기 만에 무려 3.2% 증가해 선

두에 올랐다. 아일랜드 GDP는 지난해 3분기 4.1%, 4분기 3.6% 증가하는 등 고성장 가도를 달리고 있다.

또 스페인(+0.6%), 리투아니아(+0.6%), 체코(+0.5%)의 경우도 상당 수준의 단기 성장세를 보였다. 마치 미국 발 전 세계 관세분쟁에 아랑곳하지 않는다는 듯한 수치다.

캐나다(+0.4%) 경제 역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으름장·입담에 굴하지 않는 모습이 수치상으로 나타났다. 멕시코는 +0.2%를 기록했다.

이 밖에 벨기에가 +0.4%, 이탈리아가 +0.3%, 독일·오스트리아·코스타리카가 각각 +0.2%를 기록했다. 프랑스와 핀란드, 에스토니아 GDP는 작년 4분기와 비교해 각각 0.1% 늘었다. 스웨덴(0.0%) 경제 규모는 그대로 유지됐다. 일본의 1분기 성장률은 이날 기준 취합되지 않았다.

우리와 경제규모 12~13위를 다투는 스페인의 경우 지난 1년간 꾸준한 성장

흐름을 나타냈다. 스페인 경제는 지난해 2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각각 0.8%, 0.7%, 0.7%, 0.6% 성장했다. 경제규모 10위권에 드는 캐나다 성장률도 각각 0.7%, 0.5%, 0.6%, 0.4% 등 경쟁력을 보이고 있다.

반면 한국은 작년 2분기 -0.2%, 3분기 +0.1%, 4분기 +0.1%, 올해 1분기 -0.2%로 사실상 뒷걸음질 중이다. 연간 기준으로 올해 1% 미만의 성장을 국내외 기관 다수가 예측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대한 내년 경기 전망 또한 회의적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달 하순 ‘2026년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4%로, 종전의 2.1%에서 0.7%p나 내렸다. 이 같은 상황을 조금이나마 만회하기 위해선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안의 신속한 집행은 물론, 차기 정부 지권 직후 곧장 2차 추경 편성에 나서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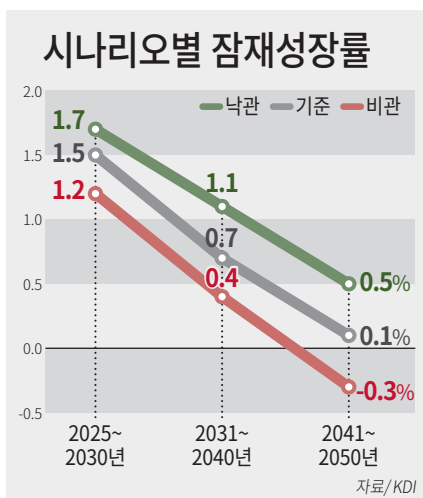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KDI “韓, 초고령 진입… 구조개혁 미루면 20년 내 ‘역성장’”

잠재성장률·정책적 시사점 보고서
생산인구 감소, 경제성장 기반 약화
성장률 1%대 이하로 둔화 가능성

고령화속도가 빠른 우리나라는 국제통상분쟁의 장기화 및 경제 구조개혁의 지연까지 마주할 경우 20년 내 역성장할 수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초고령사회로 접어든 한국은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경제활동가능 인구가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 여기에 기업 경영 및 노동 환경까지 개선되지 않을 시 2040년 이후엔 성장률이 ‘마이너스(-)’ 영역까지 추락할 수 있다는 경고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8일 김지연·김준형 연구위원과 정규철 선임연구



위원이 펴낸 KDI 현안분석 ‘잠재성장률 전망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같이 전망했다.

KDI는 우리나라 총요소생산성(TF

P) 증가율이 정체되고 인구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될 경우, 향후 20년 이내 잠재성장률이 1%대 초반에서 마이너스로 고꾸라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총요소생산성은 노동생산성뿐 아니라 근로자의 업무 능력, 자본투자금액, 기술도 등을 복합적으로 반영한 수치로 생산성을 분석하는데 널리 활용된다.

보고서는 우리 경제가 2025~2030년 잠재성장률이 1.5%에 불과하고, 2040년대에는 0% 내외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잠재성장률 하락은 고령화에 따른 노동공급 축소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분석이다.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2019년 정점을 찍은 뒤 감소세를 이어간다. 이어 2050년에는 전체 인구의 51.9% 수준으

로 낮아질 것으로 예측했다. 반면 고령인구(65세 이상)는 40%를 넘어설 것으로 봤다.

이처럼 생산연령인구 감소로 노동투입 기여도가 급락하고 상황에서 최근 10년간 총요소생산성 증가세까지 둔화하며 경제 성장의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통상 갈등마저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아, 경제 자원 재배분이 지체될 경우 ‘구조적 성장률 하락’은 현실화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실제 보고서는 국제통상 갈등으로 국제 분업과 기술 확산이 제한되는 가운데 경제 구조개혁까지 지연되는 ‘비관 시나리오’에서 2040년대 초반부터 마이너스 성장(-0.3%)에 진입할 가능성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모든 시나리오에서 잠재성장률과 1인당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모두 하락하겠으나, 총요소생산성 증가세에 따라 성장률에 작지 않은 격차가 존재한다”며 “낙관 시나리오에서는 2050년에도 소폭의 성장이 예상되는 반면, 경제 구조개혁이 지체되는 비관 시나리오에서는 역성장 시점이 2040년대 초반으로 앞당겨질 수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경직적인 임금체계 개선 ▲시장 진입장벽 완화 ▲경쟁 제한 규제 개선 ▲성과 중심 보상체계 도입 ▲여성·고령층 노동시장 참여 확대 등을 총요소생산성 회복의 핵심 과제로 꼽았다.

/세종=김연세 기자

‘뒷북·찔끔’ 추경에… 차기 정부 2차 추경론 급부상

국회예산정책처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내수부진 등에 2차 추경 필요성 커져
모건스탠리 “3분기 최대 35조 예상”

내수 부진 장기화와 트럼프 발 관세 전쟁 여파로 한국 경제가 0%대 저성장의 늪에 빠져들 것이란 예상이 나오면서 적극적인 재정정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지난 1일 국회에서 13조8000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이 의결됐으나, ‘뒷북’, ‘찔끔’ 추경이란 평가가 나오면서 조기대선 이후 들어설 새 정부가 속도감 있게 2차 추경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달 발간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경제가 겪는 가계·기업 심리 위축과 내수 부진에 따른 추경안 편성 의견은 지난해 말부터 지속 제기돼 왔다. 한국은행은 올 1월

0.2%포인트수준의 경제성장률 제고를 위해 최소 15조원 규모의 추경안 편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은 지난 1일 1차 추경안에 찬성표를 행사했다며 “추경 규모는 내수를 진작하고 민생고를 완화하기 위한 목적 달성에는 터무니없는 수치”라며 “조기 대선 이후 들어설 차기 정부가 내수 진작용 대규모 2차 추경을 편성을 것을 기대하면서 우선 급한 불이라도 꺼야 한다는 마음이었다”고 밝혔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12조원 추경 시 경제성장률이 0.1% 포인트 증가할 것”이라며 미흡한 규모의 추경이라고 언급했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0%대까지 떨어진 상황에서 추경 규모가 부족하다는 점을 예들려 표현한 것으로 풀이된다.

글로벌 투자은행 모건스탠리도 한국의 차기 정부가 들어서면 곧 2차 추

경을 마련할 것으로 전망했다. 캐슬린 오이코노미스트는 지난 7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내달 3일 예정된 대통령 선거 이후 재정 정책이 주목받을 것”이라며 “한국 정부가 올해 3분기 최대 35조원 규모 2차 추경을 마련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지난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13조8000억원 규모 추경안에 대해 “GDP(국내총생산)의 0.6%에 해당한다”며 “이는 올해 성장률을 단지 10bp(1bp=0.01%p) 올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3분기에 한국은행으로부터 (경기 부양을 위한)바통을 이어받아 의미 있는 2차 추경안을 편성할 여지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추경 규모는) 20조~35조원이 될 것”이라며 “이는 내년엔 22~31bp의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추산했다.

/한용수 기자 hys@

경총 “법인세 최고세율 22%로 낮춰야”

기업부담 완화·규제 철폐 입법 요구

입법부가 한국 경제에 불어닥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고 운영의 부담을 덜어주는 법안 입안과 처리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때마침 6·3 조기 대통령선거가 열려 각 대선 주자들이 한국경제를 수술대 위에 올려놓고 위기 극복을 위한 각종 공약을 내놓는 가운데, 세제 개편·첨단 산업 육성·사업주 처벌 규정 합리화 등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는 산적해 있다.

대선을 앞두고 늘 나오는 세제 개편의 주요 과제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다. 현행 법인세는 지난 2023년 과세표준 구간 별로 1%포인트씩 인하여 최저 9%에서 최고 24%까지 적용한다.

한국경영자총연합회(경총) 등 경제계는 한국 경제 레벨업을 위해 현행

24%인 법인세 최고세율은 22%로 2%포인트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수출 중심의 한국 경제가 미국의 관세 전쟁 등 유례 없는 위기에 처해 있고 한국의 법인세 명목 최고세율은 26.4%(지방세 포함)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8개국 중 11위로 기업에 부담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3%포인트 인하해 21%로 낮추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다만,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윤석열 정부 내내 세수 펑크 현상을 초보자감세 때문이라고 지적해온 탓에 적극적인 법인세 감세 정책을 내세우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경제계의 숙원인 중대재해처벌법 완화도 이번 대선에서 논의될 지 관심을 모은다.

/박태홍 기자 pth7285@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새롭게 펼쳐질
인생 계획 하나하나,
**하나금융그룹이
함께 하겠습니다**

HANA THE NEXT 하나더넥스트



노후 설계



상속·증여



가업 승계

전문가와 1:1 맞춤 종합 솔루션 제공

하나금융그룹

| 하나금융지주 | 하나은행 | 하나증권 | 하나카드 | 하나캐피탈 | 하나생명 | 하나손해보험 | 하나저축은행 |
| 하나자산신탁 | 하나자산운용 |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 하나에프앤아이 | 하나벤처스 | 하나펀드서비스 | 핀크 |

민주당, ‘공정·성장·보호’ 통해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 나서

코스피5000시대, 정책협약식
이재명 주식·자본시장 공약 뒷받침
세계 인센티브, 주주환원률 제고
주주보호, 제도 개선 등 제안 경청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산하 코스피5000시대 위원회가 8일 주식·자본시장의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 제안을 듣고 기업이 정당하게 평가 받는 성장의 터전을 만들기 위해 제도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지난 4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 주가지수(코스피) 5000 시대를 열겠다”며 상법 개정, 기업 지배 구조 투명성 확보 등을 공약한 바 있다.

코스피5000시대 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정책협약식을 열고 이 후보의 주식·자본시장 공약을 뒷받침하고 장단기 비전을 세우기 위해 활동을 시작했다. 이날 정책협약식에는 오기형 위원회 상임위원장, 강훈식 선대위 종합상황실장, 이강일·김남금·박홍배·이정문·정준호·김현정 민주당 의원이 참석했다.

박찬대 상임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오늘 정책협약식은, 2007년 처음으로 코스피 2000시대를 열었던 민주당이,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산하 코스피5000시대 위원회가 8일 주식·자본시장의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 제안을 듣고 기업이 정당하게 평가 받는 성장의 터전을 만들기 위해 제도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박태홍 기자

2025년 다시 코스피 5000시대를 개막하겠다는 다짐의 자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국민의힘 정권 3년 만에 대한민국 경제는 위기에 빠져버렸다. 1%대 저성장은 현실이 됐고, 이젠 마이너스 성장을 걱정할 상황”이라며 “‘셀 코리아’가 만연하고, 외국인 투자도 줄줄 빠져나가고 있다”고 부연했다.

박 위원장은 “특히 12·3내란사태로 주가는 폭락하고, 환율은 치솟았다. 대부분의 경제지표가 코로나19 팬데믹 시기보다 훨씬 나빠졌다”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은, 올해 들어서만 주식을 18조 원 넘게 순매도해, ‘코리아 엑소더스’를

주도하고 있다. 아직도 많은 투자자가 국내 주식시장에 대해, 기대보다 불안을 느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 민주당이 그 새로운 기회를 열겠다”면서 “국민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혁신기업이 정당하게 평가받는 성장의 터전, 투자자가 두텁게 보호받는 경제구조와 제도, 이 세 가지를 확실히 만들겠다. 자산 증식의 기회를 국민 모두에게 돌려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이창희 금융투자협회 전무는 정책 제안으로 “연금을 제외하면 펀드 등의 장

기투자가 너무 없다는 문제가 있다. 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세계 인센티브가 필요하고 주주환원률 제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행동이 바뀌려면 이를 강행하는 법도 중요하지만 법만으로 힘들고 방향성에 대한 강력한 믿음을 줘야 한다”며 “앞으로는 대통령실에서 직접 컨트롤타워를 두고 아젠다를 정해 단기, 중기, 장기 로드맵을 만들어 주기적으로 이행 여부를 챙기는 것을 보여주면 국민과 외국인 투자자가 보기에도 신뢰 받는 모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인투자자를 대표해 나온 윤태준 소

액주주 플랫폼 액트 연구소장은 “한국 주식시장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고질적 문제에 시달려 왔다”며 “많은 사람들이 시장이 빈사상태에 가깝다고 진단하며 신뢰가 바닥에 떨어졌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근본 원인은 여러 출처에서 지적하듯 소액주주 보호 미흡에 있다”며 “한국은 자본주의 국가가 아니라 최대주주 자본주의 국가라는 자조적인 발언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윤 연구소장은 “일각에서 특정 사안에 국한한 핀셋 규제도 충분하다고 말하지만 땀땀 처방에 불과하며 눈 가리고 아웅”이라며 “지배주주들은 상법 핏수로 소액주주의 부를 이전시켜 온 사례가 많아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번 좌초됐던 상법 개정안 재입법을 포함해 세법이나 금융감독원·거래소 규정까지 아우르는 전반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기업 죽이기가 아니라 우리 기업과 자본시장을 살리는 길”이라고 했다.

윤 연구소장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대형 상장사 집중투표제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주주총회 투명성 제고 등을 제안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토론·여조 후 단일화” vs “11일 이전에 해야” 이재명, ‘임플란트 건강보험 나이 하향’ 공약

〈김문수 대선후보〉

〈한덕수 예비후보〉

김문수, 자체 ‘단일화 로드맵’ 추진
대통령 후보자 지위인정 가져분 신청
사상 초유의 당 주도 ‘강제 단일화’

‘반명(반이재명) 빅텐트’의 첫 단추인 ‘김문수-한덕수 단일화’가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8일 김 후보는 일주일간의 선거운동 및 ‘14일 방송토론, 15~16일 여론조사 후 단일화’ 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한 예비후보 측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중앙선거위 후보 등록 마감일인 오는 11일 이전에 단일화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두 사람은 전날(7일)에 이어 두 번째로 만났지만, ‘시간’을 무기로 삼은 김문수 후보의 버티기가 길어질수록 초조해지는 것은 한덕수 예비후보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김 후보는 서울 여의도 캠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 지도부를 향해 “강제 후보 단일화라는 미명으로 정당한 대통령 후보를 끌어내리려는 작업에서 손 떼라”라고 못 박았다.

당 지도부는 전날 김 후보와 한 예비후보의 단일화 담판이 사실상 결렬된 이후 자체 ‘단일화 로드맵’ 추진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날 오후 6시 양자 토론회를 진행하고, 이후 7시부터 이튿날 오후 4시까지 당원 투표(50%)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50%)를 실시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김 후보가 불참 의사를 밝히며 당이 주관하는 토론회는 취소됐다. 그리고 당 지도부와 김 후보의 갈등은 더 커지고 있다. 단일화를 촉구하며 단식에 들어간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의회에서 김 후보를 향해 “당원의 명령을



김문수(오른쪽)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대선 후보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강변서재 야외에서 단일화 관련 회동을 하고 있다. /손진영기자 son@

무시한 채 그 알량한 대통령 후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아침에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을 보며 저분이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해왔던 민주화 투사인지, 세 번의 국회의원과 두 번의 경기도지사, 고용노동부 장관을 역임한 우리 당의 중견 정치인인지 의심했다. 정말 한심한 모습”이라고 말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김 후보의 ‘14일 방송토론, 15~16일 여론조사 후 단일화’ 안을 불가능하다면서 오는 10일까지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와의 단일화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필요한 결단을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권 비대위원장은 “이번 단일화 과정에서 김 후보의 잘못된 판단으로 우리가 대선에서 패배하면, 김 후보뿐만 아니라 우리 당 모두가 역사와 국민에 큰 죄를 짓는 것”이라며 대선 패배의 책임을 김 후보에게 돌리겠다는 취지로 압박에 나섰다.

하지만 김문수 후보는 당 지도부의

압박에 아랑곳없는 모습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김 후보는 이날 직접 ‘대통령 후보자 지위인정 가져분’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 지도부가 요구하는 방식의 단일화를 응하지 않는다고 해서, ‘강제 단일화’를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이 경우 국민의힘이 이번 대선에 후보를 내지 못하고 대선을 치를 수도 있다는 게 김 후보 측의 주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에서는 당 주도의 ‘강제 단일화’는 사상 초유라는 반응이다. 2002년 대선 당시 새천년민주당의 ‘후보단일화 협의회(후단협)’이 떠오른다는 평가가 대다수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2025년 판 후단협 사태’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국민의힘이 김 후보를 정식으로 후보 등록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그러나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이날 “(단일화가 무산될 경우) 김 후보가 당의 후보로 대선을 치를 것”이라며 단일화 실패 시 사퇴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서예진 기자 syj@

어르신 돌봄 국가책임제 등 발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선 후보가 8일 어버이날을 맞아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하향과 개수 확대 및 어르신 돌봄 국가책임제 등 어르신 정책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어르신이 행복한 나라, 이재명이 만드는 진짜 대한민국”이라며 “대한민국은 전쟁의 상흔을 이겨내고 세계 10위권 경제강국, 세계 5위의 군사강국으로 도약했다. 그 기반에는 어르신들의 헌신과 피땀이 있었다”며 고령층의 노고를 치하했다.

이 후보는 “자랑스러운 역사를 만든 어르신들께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누릴 수 있도록, 국가가 제대로 보답해야 한다”며 “기초연금 부부감액을 단계

적으로 줄이겠다. 어르신 부부가 좀 더 여유롭게 지내시도록 돕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하는 어르신 국민연금 감액도 개선하겠다. 오히려 100세 시대 어르신이 일하실 수 있도록 권장하는 것이 맞다”며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연령은 낮추고, 개수는 늘려가겠다”고 말했다.

현행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은 만 65세 이상에게 평생 2개까지만 가능하다. 본인 부담률은 30%다.

이 후보는 “어르신 돌봄 국가책임제를 시행하겠다. 지역사회가 함께 돌보는 통합돌봄을 확대해 어르신이 동네에서 편하게 돌봄을 받게 하겠다”며 “간병비 부담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함께 나누겠다. 공공이 부담을 나눠 간병파산의 걱정을 덜어드리겠다”고도 했다.

/박태홍 기자

유영상 “고객신뢰회복위원회 설치해 위약금 논의”

(SKT 대표이사)

과방위 SKT 해킹 관련 청문회

유영상 SK텔레콤(SKTEL) 대표이사(사진)가 8일 유심 해킹 사태로 바닥에 떨어진 고객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고객신뢰회복위원회’를 설치해 위약금 문제 제기도 포함해서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유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열린 SKT 해킹 관련 청문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유영상 대표는 “고객신뢰회복위원회



를 조속히 설치해서 신뢰가 상실된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조사하고 고객의 목소리를 듣고 고객 보호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이 “고객신뢰회복위원회 위약금 문제까지 다루나”라고 묻자 유 대표는 “위약금 문제를 포함해서 전체적인 고객 신뢰 회복에 대해 다루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박태홍 기자

10th
ANNIVERSARY
모짜렐라인더버거

LOTTERIA™



토마토 바질



발사믹 바질

나폴리 맛피아 모짜렐라 버거

버거,
맛있게
손봤다

상기 이미지는 실제 제품과 다를 수 있습니다

파킹통장 ‘유동성’, 단기적금 ‘수익’, 정책금융 ‘목돈 마련’

청년 금융자산 분할 전략

저금리 기조, 예·적금 금리 역전
목적별 분산으로 유연한 설계
파킹통장·청년도약계좌 주목
26주·6개월 등 단기적금 인기

최근 청년 세대의 금융자산 ‘분배 전략’이 화두다. 청년의 금융자산 규모가 커졌지만 각종 금융 상품의 금리는 하락하고 있어서다. 특히 청년 세대는 자산의 불확실성이 높은 만큼 단일 상품에 자산을 집중하기보다는 다수 상품에 자산을 분산하는 게 유리하다는 분석이다.

8일 은행연합회 고시에 따르면 국내 18개 은행이 취급하는 정기예금 상품의 최고 금리는 연 2.34~3.1%(1년) 수준이다. 해당 상품들의 전월 취급 평균 금리는 2.61~3.15%였다.

예금 금리가 하락하면서 적금과의 이자 역전까지 나타났다. 통상적으로 같은 금액을 납입할 경우 목돈을 단번에 맡기는 정기예금이 금액을 나눠 내는 적금보다 이자액이 많다. 하지만 예금 금리가 연 2~3%까지 낮아지면서, 최고 연 5~6%의 금리를 제공하는 적금 상품보다 이자액이 줄었다. 금융 거래를 시작하는 20대 청년 세대의 선택이 복잡



2025년 입대자의 경우, 18개월간 장병내일준비적금을 완납하면 약 2021만원의 ‘목돈’을 받을 수 있다. ‘장병내일준비적금’ 통장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는 국군 장병들. /뉴시스

해진 이유다.

신한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20대 미혼 청년의 평균 금융자산은 3625만원을 기록했다. 2년 전 2642만원에서 1003만원(38%)이나 늘었다. 특히 올해부터 군 복무를 마친 청년들이 장병내일준비적금을 통해 약 2000만원의 ‘목돈’을 손에 쥌 수 있게 된 만큼, 금융 상품 선택은 더 중요해졌다.

◆ 유동성 중요… ‘파킹통장’ 최우선

청년 세대는 기성세대보다 자산의 불확실성이 높은 만큼 입출금이 자유로운 파킹통장(고금리 수시입출금예금)을 우선 개설하는 것이 좋다. 파킹통장은 입출금이 자유롭지만 연 2~3%의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다만 최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는 예금액에 한도가 있고, 향후 금리가 변동할 수 있어 급여 통장이나 대기 자금 예치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우리은행은 최대 200만원의 예금액에 최고 연 3.1%의 금리를 제공하는 ‘우월한 월급 통장’을 특판하고 있다. 기본 금리 연 0.1%에 더해 해당 통장으로 급여이체 시 2%포인트(p)의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6개월간 우리은행 거래가 없었을 경우 1%p의 우대금리를 추가 적용한다.

BNK경남은행은 상대적으로 많은 예금액에도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BN

K 파킹통장’을 판매 중이다. 5000만원 이하의 예금액에는 연 2.3%,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의 예금액에는 2.0%의 금리를 제공하며, 은행 마케팅 정보활용 동의시 0.7%p의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최고 금리는 3.0%다.

농협은행은 만 19~34세 청년 전용 상품인 ‘NH1934우대통장’을 공급한다. 기본 금리는 연 0.1%지만, 당행 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 거래, 당행 급여입금, 자동이체 등록 등 주거·재테크 충족 시 2.9%p의 우대금리를 추가로 제공한다. 예금액 한도는 100만원이다.

◆ ‘정부표’ 정책금융상품, 높은 금리

자산규모가 안정적이거나 향후 일정한 소득을 기대할 수 있다면 정부의 청년 정책금융상품인 청년도약계좌와 청년주택드림청약도 고려할 수 있다. 가입 기간은 각각 5년과 10년으로 길지만, 은행권 상품보다 높은 금리를 제공한다.

청년도약계좌는 만 19~34세 청년이 5년 동안 최대 월 70만원을 납입하면 연 6%의 금리에 더해 정부가 소득 규모에 따른 지원금을 제공하는 상품이다. 은행권 적금과 비교한 실질 금리는 연 9.54%에 육박한다.

청년주택드림청약은 19~34세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최대 연 4.5%의 금리

를 제공하는 청약 통장이다. 금리가 연 4.5%로 통장 2% 수준인 일반 청약통장보다 높고, 최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는 기간도 10년에 달한다.

◆ 투자대기자금 있다면… ‘단기적금’도 은행 예·적금 이외에 주식·펀드·가상자산 등에 투자가 잦다면 인터넷전문은행(카카오·토스·케이)이 주로 공급하는 ‘초단기적금’도 고려할 수 있다.

카카오뱅크는 26주간 매주 금액을 늘려 납입하면 최고 연 5.5%의 금리를 제공하는 ‘카카오뱅크 26주적금’을 판매한다. 최초 가입 시 1000원~1만원 사이에서 금액 설정이 가능하며, 매주 납입시 약정금액 만큼 납입액이 늘어난다.

토스뱅크는 6개월 동안 매주 금액을 자유롭게 납입하면 만기 시 최고 3.8%의 금리를 제공하는 ‘토스뱅크 키워바오 적금’을 판매하고 있다. 월 최대 100만원 한도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도중에 유동성이 필요해질 경우 납입액 일부를 출금할 수 있는 것도 특징이다.

케이뱅크는 1개월 가입 시에도 연 3.0%의 금리를 제공하는 ‘코드K 자유적금’을 판매한다. 납입액 한도는 30만원이지만, 1인당 15개까지 중복해 가입할 수 있다.

/안승진 기자 asj1231@metroseoul.co.kr

“연내 印尼서 QR코드로 결제·인출 가능해진다”

박종석 금융결제원장

소액결제서비스 연계 허브 구축
금융사·핀테크사 활용 확대 기대

#. 2027년 인도네시아에 살고 있는 아디티야(Aditya·가명) 씨는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고 노점상에서 간식을 사먹는 것까지 모든 것을 스마트폰으로 한다. 계산대 옆에 있는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기만 하면 결제가 자동적으로 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시스템은 다른 나라에서도 가능하다. 외국에서 결제할 때에도, ATM기에서 현금을 인출할 때에도 QR코드를 인증하면 저렴한 수수료로 이용할 수 있다.

앞으로 인도네시아의 금융생활이 더 편리해질 전망이다. 스마트폰에서 QR코드를 스캔하면 결제가 가능한 것을



박종석 금융결제원장이 지난 6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한국은행 출입기자단과 만나 소액지급결제서비스의 국가간 연계를 위한 허브시스템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금융결제원

넘어 ATM기에서도 현금을 인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결제원이 국내 결

제사업자와 해외결제 사업자의 다리 역할을 하면서 국제브랜드(VISA, MASTER 등) 카드사 인프라를 이용하며 났던 수수료도 낮아질 전망이다.

박종석 금융결제원장은 지난 6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린 아시아개발은행(ADB) 총회에 참석한 뒤 동행기자단과 만나 “각국의 다양한 소액지급결제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는 허브시스템을 구축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현재 글로벌 지급결제 시장에서는 대표 지급결제시스템을 직접 연계해 모바일로 결제하는 방식이 확대되고 있다. 예컨대 우리나라 소비자가 해외에서 상품을 구입하면 비자(VISA)·마스터(MASTER) 등 국제 카드를 이용해 결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 결제

사업자와 해외 결제사업자를 직접 연계해 모바일로 결제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가장 먼저 허브시스템 인프라를 도입할 국가는 인도네시아다. 현재 인도네시아는 자국내에서 QR코드를 스캔해 결제하는 방식이 폭 넓게 활용되고 있다. 이곳에 허브시스템 인프라를 도입해 인도네시아인이 한국에 와도 QR코드로 결제하고, ATM기에서도 현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한다.

물론 한국사람도 인도네시아에서 스마트폰으로 QR코드만 스캔하면 결제, 현금을 인출할 수 있다.

박 원장은 “우리 여행객이 인도네시아에 나갔을 때 카드가 없어도 스마트폰 하나로 QR코드를 결제할 수 있고, 외국 ATM기에서도 현금을 찾을 수 있

도록 시스템을 마련하겠다”며 “활성화 되면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들은 지급결제시스템을 활용해 금융서비스를 좀 더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비용절감도 가능하다. 허브시스템 인프라를 도입하면 외국에서 결제할 때마다 비자(VISA) 마스터(MASTER) 등의 국제 브랜드 카드사 인프라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지금까지 국제브랜드 카드사 인프라를 활용하면 거래금액의 1% 내외를 수수료로 내야 했다. 수수료가 보다 저렴해지면서 거래도 활발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박 원장은 “좁게는 국내 결제사업자와 해외 결제사업자, 넓게는 고객과 해외 가맹점의 다리역할을 하기 위해 금융결제원과 인도네시아 지급결제기관 아스피(ASP)가 협의하고 있다”며 “연내 허브시스템 인프라를 서비스를 출시하겠다”고 말했다.

/밀라노(이탈리아)=나유리 기자 yul115@

‘대선정국’ 세종 집값 강세… 두 달새 1억 켤충

정치권 수도 이전 발언 촉매제
매매가 전주 대비 0.49% 상승

“세종은 요즘 분위기가 확 달라졌어요. 전화 오는 빈도부터 다릅니다.”

세종시 아파트값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정치권에서 수도 이전 논의가 재점화된 데다 실거래 가격도 상승 흐름을 이어가며 시장 기대감이 반영되는 모습이다.

8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세종시 나성동 ‘나빛재마울2단지(세종리더스포레)’ 전용 99㎡는 4월

13억4000만원(24층)에 거래됐다. 전달 동일 면적 실거래가(35층, 13억2500만원)보다 1500만원 오른 금액이다.

‘세종의 강남’으로 불리는 새롬동 ‘새뜸마을10단지(더샵힐스테이트)’ 전용 59㎡도 같은 달 4층에서 6억5000만원에 거래되며 2월 11층(5억8000만원)보다 7000만원 상승했다. 두 사례 모두 더 낮은 층에서 거래됐지만 가격은 더 높게 형성됐다.

정치권의 수도 이전 발언이 직접적인 촉매제가 되면서 시장은 빠르게 반응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지난 4월 공

개 발언을 통해 “세종시가 진정한 행정수도가 되려면 대통령실과 국회, 대법원이 모두 와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지난달 17일 국회 대토론회에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와 더불어 청와대 및 헌법기관 이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후 형성된 기대감은 통계 지표에도 반영됐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4월 넷째 주 ‘주간아파트가격동향’에 따르면 세종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49% 상승했다. 전국 평균(-0.02%)은 물론 서울(0.09%)보다도 높은 수치로

세종은 4주 연속 상승세다.

특히 전주(0.23%)보다 상승폭이 두 배 이상 확대됐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정당발 경기변동에 따라 반등 기대감이 있는 수요와 전세 안정으로 매수세가 유입됐다”고 말했다.

새롬동 새뜸마을 인근 공인중개사 A씨는 “3년 전엔 12억원까지 갔던 더샵힐스테이트 국평(전용 84㎡)은 8억원대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9억원 수준까지 회복한 상황”이라며 “매도자들이 매물을 거두거나 보유하는 사례도 많고 매수문의도 활발하다”고 했다.

나성동 나빛재마울에서 중개업을 하는 B씨는 “리더스포레의 경우 국평 물량은 두 달 새 약 1억원 가까이 오르며

12억8000만원까지 상승했다”며 “최근 엔 호가가 13억 후반에서 14억원까지도 형성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나성동은 중심상업지구에 위치해 상권이 발달했고 대전·청주 등과 연결되는 교통 접근성도 뛰어나다”며 “세종예술의전당과 국립민속박물관(2031년 예정)이 포함된 국립박물관단지가 조성될 예정이어서 장기적으로 가장 주목받는 지역이다”라고 말했다.

다만 지역 간 온도차도 감지된다. 나성동과 새롬동 일대는 실수요와 투자수요가 여전히 활발한 반면 중촌동 등 일부 지역은 단기 급등 이후 광망세로 돌아섰다.

/전지원 기자 jjw13@

“사람 대신 로봇이 용접”… HD현대, 조선업에 AI 심는다

美 휴스턴서 바질·페르소나와 MOU
현대로보틱스·조선해양 공동 추진
2026년 시제품, 2027년 실증 목표
고위험 공정 로봇 대체로 안전 확보

HD현대가 인공지능(AI) 및 로봇 기술 전문기업들과 손잡고 국내 최초 용접 휴머노이드 개발에 나선다. 수년간 추진해 온 스마트 조선소 구축에 한 걸음 더 다가서는 동시에 조선업 특유의 높은 기술역량과 작업 효율성을 충족할 수 있는 경쟁력 확보가 기대된다.

HD한국조선해양과 HD현대로보틱스는 최근 미국 휴스턴에서 AI 기반 휴머노이드 로봇 전문기업 ‘페르소나 AI’, 로봇 엔지니어링 기업 ‘바질컴퍼니’와 ‘조선 용접용 휴머노이드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참여사들은 AI와 로봇 기술을 활용해 정밀 용접작업이 가능한 휴머노이드를 개발, 조선소의 생산 효율성을 높이고 작업자의 안전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HD현대로보틱스는 AI에 기반한 용접 자동화 기술을 제공하고 로봇 성능 검증을 담당한다. HD한국조선해양은



HD한국조선해양, HD현대로보틱스가 최근 미국 휴스턴에서 ‘페르소나 AI’, ‘바질컴퍼니’와 ‘조선 용접용 휴머노이드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왼쪽 세 번째부터) 김성원 바질컴퍼니 CTO, 닉 래드포드 페르소나 AI CEO, 이동주 HD한국조선해양 제조혁신팀 부부장, 송영훈 HD현대로보틱스 솔루션부문장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HD현대

실제 조선소 환경에서 휴머노이드를 테스트하고, 현장 적용을 위한 데이터 및 기술 지원을 제공한다.

페르소나 AI는 휴머노이드 하드웨어 개발 및 AI 기반의 로봇 제어, 학습 알고리즘을 개발한다. 바질컴퍼니는 휴머노이드에 탑재할 용접 도구를 개발하고 테스트베드 구축을 담당한다.

참여사들은 오는 2026년까지 시제품 개발을 완료하고, 2027년부터는 본격적인 현장 실증과 상용화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프로젝트는 HD한국조선해양이 추진 중인 스마트 조선소 구축 전략

의 연장선으로도 해석된다. 회사는 오는 2030년 완공을 목표로 데이터 기반 가상·증강현실, 로보틱스, 자동화, 인공지능 등 첨단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FOS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이미 AI와 로봇 기술 도입을 가시화한 가운데 이번 휴머노이드 개발을 통해 두 기술이 유기적으로 협업하는 새로운 제조 모델 구축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분석된다.

HD현대 관계자는 “용접 휴머노이드는 생산성 향상은 물론 작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안전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조선소 작업에 최

적화된 휴머노이드 구현을 통해 조선업 자동화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닉 래드포드 페르소나 AI 대표는 “AI 기술을 조선업의 핵심 공정에 적용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도전”이라며 “지능형 로봇 기술을 활용해 사람과 로봇이 협력하는 스마트 조선소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김성원 바질컴퍼니 CTO는 “정밀 용접이 가능한 휴머노이드를 개발해 조선업 자동화 수준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겠다”고 강조했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갤S25 엡지, 초슬림 디자인에 고성능 담아

삼성 오는 13일 온라인 공식 공개
5.8mm 두께, 2억 화소 카메라 탑재
韓·中 우선 출시, 글로벌 순차 확대

삼성전자가 오는 13일 오전 9시 ‘갤럭시 S25 엡지’를 온라인으로 공식 공개한다. ‘갤럭시 S’ 시리즈 사상 가장 얇은 두께와 고성능 사양을 갖춘 모델로, 본격적인 ‘슬림’ 스마트폰 경쟁에 포문을 연다는 평가다.

삼성전자는 8일 공식 뉴스룸에 ‘슬림, 그 이상의 슬림’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운 ‘갤럭시 S25 엡지 언팩’ 초청장을 공개했다. 지난 2020년 ‘S20 시리즈’ 이



지난 1월 미국 새너제이 SAP센터에서 열린 ‘갤럭시언팩 2025’에서 공개된 갤럭시 S25 엡지(왼쪽부터), 갤럭시 S24 울트라 모형, 갤럭시 S23 울트라 모형의 모습. /삼성전자

후 5년 만에 일반·플러스·울트라 3종 체제에 변화를 주는 신규 라인업이다.

갤럭시 S25 엡지는 갤럭시 S25 플러스

와 같은 6.7인치 화면 크기에 두께는 5.8mm로 추정된다. 카메라 모듈을 포함해도 8.3mm에 불과하다. 무게는 163g으로, 6.2인치 일반 모델(162g)과 비슷한 수준이다. 초박형 디자인에도 불구하고 성능은 기존 S25 시리즈와 대등한 수준이다. 퀄컴의 갤럭시 전용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인 ‘스냅드래곤 8 엘리트’와 12GB 램(RAM)을 탑재하고 256GB·512GB 저장공간을 갖춘 것으로 예상된다.

카메라는 2억 화소 메인 렌즈와 1200만 화소 초광각 렌즈로 구성된 듀얼 시스템을 채택해 일상에서 고화질 사진과 영상을 촬영할 수 있다. 전면 카

메라도 1200만 화소다.

‘갤럭시 AI’ 기능 역시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는 초대장에서 “AI를 통해 사진과 영상 촬영부터 편집, 공유까지 카메라 경험의 모든 단계를 한 치원 끌어올렸다”며 “갤럭시 S25 엡지의 카메라는 사용자의 의도를 파악해 상호작용을 가능케 하는 ‘눈’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는 앞서 지난 1월 22일(현지 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에서 열린 ‘갤럭시 S25 언팩’ 행사에서 갤럭시 S25 엡지 모델의 티저 영상과 실물을 처음 공개한 바 있다. 갤럭시 S25 엡지는 한국과 중국에서 우선 출시된 뒤, 이달 말부터 미국 등 주요 글로벌 시장으로 순차 확대될 예정이다.

/이혜민 기자 hyem@

삼성전자

QLED, TUV 인증 완료 프리미엄 TV 리더십 강화

삼성전자가 퀀텀닷 기술을 탑재한 양자점발광다이오드(QLED) TV로 독일 시험·인증기관 ‘TUV 라인란드’로부터 ‘리얼 퀀텀닷 디스플레이’ 인증을 받았다고 8일 밝혔다.

퀀텀닷은 머리카락을 수만 분의 일로 나눈 크기의 나노 입자로, 빛의 파장에 따라 정밀한 색 표현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프리미엄 디스플레이의 핵심 소재로 주목 받고 있다.

이번 인증은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가 제시한 퀀텀닷 디스플레이 기준에 따른 것으로, ▲퀀텀닷 필름 등 광학 부품과 ▲청색 LED 백라이트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인증을 받은 제품은 ▲Neo QLED8K 2종 ▲Neo QLED 4K 4종 등 총 9개 시리즈다.

TUV 라인란드 측은 삼성전자의 QLED TV가 스펙트럼 측정에서도 적·녹·청(RGB) 세 가지 색상이 뚜렷하게 구분되는 양호한 결과를 보였다고 밝혔다.

/이혜민 기자



손태용 삼성전자 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 부사장(가운데) ‘리얼 퀀텀닷 디스플레이’ 인증 수여식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삼성전자

르노코리아

그랑 콜레오스 앞세워 해외시장 공략 가속화

르노코리아가 국내에서 흥행중인 중형 SUV 그랑 콜레오스를 앞세워 중동과 중남미 등 해외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르노코리아는 그랑 콜레오스의 중남미 수출 물량을 지난 7일 선적하면서 본격적인 해외시장 공략에 돌입했다.

이번에 수출 선적을 마친 그랑 콜레오스는 총 894대로 멕시코와 콜롬비아 시장에서 판매할 물량이다. 르노코리아는 멕시코, 콜롬비아 외에도 향후 브라질, 우루과이, 파나마, 도미니카공화국 등 중남미 지역의 다양한 주요 시장에 그랑 콜레오스를 수출할 예정이다.

앞서 르노코리아는 지난 3월 그랑 콜레오스의 중동 지역 수출을 위한 사전 배송 물량 일부가 수출 길에 오르기도 했다.

르노코리아는 그랑 콜레오스를 앞세워 ‘인터내셔널 게임 플랜(International Game Plan)’ 계획의 핵심 모델 중 하나로 선택했고, 오는 2027년까지 8종의 신차를 출시하고 유럽 이외의 글로벌 시장을 공략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이승용 기자

SK어스온, 베트남 광구서 원유 추가 발견

15-1/05 광구, 32m 유층 발견

SK이노베이션의 에너지 자원개발 자회사 SK어스온이 베트남 유전 개발에서 잇따라 성과를 내고 있다.

SK어스온은 내년 하반기 생산에 들어갈 예정인 베트남 15-1/05 개발광구 황금나타 구조에 인접한 붉은나타 구조에서 원유를 추가로 발견하는데 성공했다고 8일 밝혔다.

앞서 SK어스온은 지난 1월 베트남 15-2/17 광구 탐사정 시추에서도 원유 부존을 확인한 후 시험 생산에 성공한 바 있다. 이어 3개월 만에 15-1/05 광구에서도 잇단 낭보를 전한 것이다.

베트남 15-1/05 광구의 운영권자인

미국 머피사는 지난 7일 어닝콜에서 베트남 남동부 해상의 쿨롱 분지에 위치한 15-1/05 광구 붉은나타 구조에서 원유 발견에 성공했으며 하루 2500배럴 규모의 고품질 경질 원유를 시험 생산해 냈다고 밝혔다.

머피는 “15-1/05 광구의 붉은나타 구조 탐사에서 심도 약 4100미터 부근 시추를 통해 32미터 두께의 유층을 발견했다”며 “이 구조는 현재 개발이 진행 중인 황금나타 구조에서 약 5km(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원유 발견은 지난 1월 베트남 15-2/17 광구 원유 발견에 이은 올해 두번째 자원개발 성과”라고 덧붙였다.

/차현정 기자

LG엔솔 “북미 생산역량 확대로 경쟁력 강화

‘엘티엠셀즈 3기’ 최종 인수

LG에너지솔루션이 GM과의 3번째 합작공장 ‘엘티엠셀즈 3기’의 인수를 최종 완료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인수가 이미 한 달 전 예고된 수순이라는 점에서 순탄하게 진행됐다는 평가가 따른다.

LG에너지솔루션은 공시를 통해 미국 미시간 랜싱에 위치한 엘티엠셀즈 3기의 건물 등 자산 일체의 소유권 이전을 완료했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랜싱 공장은 LG에너지솔루션의 북미 내 ‘세 번째 단독 공장’으로 전환됐다.

랜싱 공장은 총 부지 면적 약 95만m²으로 지난 2022년 착공 이후 2025년 5월 현재 98% 이상 건설이 완료되어 현

재 장비 반입을 진행 중에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이번 인수를 통해 투자 효율성을 한층 확대하게 되었다. 북미 지역 기존 수주 물량 대응을 위해 생산시설 신·증설이 필수적인 상황에서 구축이 완료된 공장을 활용함으로써 신규 설비 투자 부담을 완화하고 생산 시기도 앞당길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최근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북미 지역 인프라 비용이 급증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투자 효율화 전략은 더욱 빛을 발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인수는 미국 현지 생산 체계 구축을 가속화해 현지 공급 역량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깊다고 회사는 설명했다.

/차현정 기자

中企 스마트공장 고도화 나선다

중기중앙회-포스코, 지원사업
참여기업 업체당 최대 2.4억
현장방문·지도 등 사후 컨설팅도

중소기업중앙회가 포스코와 함께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한다.

중기중앙회는 이달 23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2025년 '대·중소 상생형(포스코)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도입기업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8일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중기부, 포스코와 함께 2019년부터 6년간 총 460여 개사의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하며 중소기업의 제조혁신 기반을 마련해왔다.

올해는 정부의 디지털 제조혁신을 위한 질적 고도화 정책 방향에 발맞추어 '고도화' 수준의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포스코와 거래 관계가 없는 기업도 신청할 수 있다.

참여기업은 총 사업비 4억원 이내의 경우 업체당 최대 2억4000만원(총 사업비의 60% 수준)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대·중소 상생형(포스코) 스마트공



중소기업중앙회 전경

장 구축 지원사업'은 스마트공장 구축뿐만 아니라 포스코의 동반성장지원단을 통한 포스코 기술 노하우 전수를 통해 더욱 내실있는 결과물을 얻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

포스코의 동반성장지원단은 평균 25년 이상의 경력과 전문성을 보유한 전문가로 구성된 중소기업 지원 전문조직으로, 중소기업 현장에서 직접 취약 영역을 진단하고 밀착 컨설팅을 지원하는 등 중소기업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사업 참여기업은 동반성장지원단을 활용한 현장방문과 지도를 통해 포스코 혁신방법론 전수 등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참여기업은 사업 초기부터 포스코 그룹 내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자체 추진단의 현장밀착형 구축 가이드를 받을 수 있으며, 환경·에너지·설비진단 등 중소기업이 독자적으로 해결이 어려운 것까지 사후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사업 초기부터 구축 이후까지 전주기에 걸친 기업별 맞춤형 지원뿐만 아니라 ESG·뿌리 기업 등 테마별 특화방식을 통한 중소기업의 ESG 경영도 적극 지원한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의 경영환경 불확실성이 커진 현실에서 대·중소기업 간의 상생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며 전문 대기업이 수많은 시행착오로 축적해온 제조혁신 경험과 노하우를 중소기업에 전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중기중앙회에서도 정부, 대기업과 함께 급변하는 산업환경에 중소기업이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지속적인 성장을 해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SK네트웍스, '나무엑스' 등 AI사업 구체화

최성한 사장, AI 신규사업 주도

SK네트웍스가 AI 핵심 기술 확보부터 기존 사업과의 접목, 인프라 확장에 이르기까지 전략 방향과 연계한 성과들을 창출하면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SK네트웍스는 AI 기업으로 진화하기 위해 '나무엑스' 브랜드를 선보이는 등 구체적인 사업모델을 갖춰나가고 있다고 8일 밝혔다.

로보틱스에 기반한 웰니스 혁신을 추구하는 나무엑스는 지난달 23일 서울 워커힌 호텔앤리조트에서 런칭 쇼케이스 행사를 진행했다. 나무엑스는 SK네트웍스의 AI 전략 방향성 아래 SK매직의 자원을 활용해 탄생한 브랜드다.

이번 쇼케이스에서 선보인 웰니스 로봇은 에어 솔루션, 바이탈 사인 체크, 대화형 서비스 등을 시연했다. 오염된 공간으로 스스로 움직여 혁신적인 청정 및 실내공기 관리 효과를 보였고 비접촉 안면인식으로 스트레스 지수 등 생체정보를 실시간으로 측정하기도 했다.

실리콘밸리 인재들로 구성된 AI 스타트업 피닉스랩의 성과도 가시화되고 있다. 지난해 말 제약 산업 특화 AI 솔루션인 케이론은 현재 20여 개의 제약업체에서 실제 활용되고 있다. 나무엑스 웰니스 로봇의 두뇌 역할을 하는 AI 개발 지원 등 다양한 혁신 프로그램에도 참여한다.

SK네트웍스의 AI 신규사업 추진은 최성한 사업총괄 사장이 주도하고 있다. 그는 SK네트웍스의 글로벌 기술 네트워크인 하이코시스템 구축을 주도하고 AI 밸류체인 확대를 이끌어왔고 오픈 생태계를 기반으로 한 비즈니스 확장 기회 모색을 지원하는 중이다.

이호정 SK네트웍스 대표이사는 "안정적이고 탄탄한 재무체력을 바탕으로 나무엑스, 케이론을 비롯한 구체적인 성과를 선보여 이 시대에 맞는 AI 민주화를 추진할 것"이라며 "글로벌 기술 리더십을 바탕으로 산업 생태계 확장을 주도하고 회사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

美 TPO 각광... 한화솔루션 등 수혜 기대

〈태양광 대여 사업〉

주거용 태양광 시장 업황 개선 전망
한화솔루션 자체 모듈 생산 역량 갖춰

미국 주거용 태양광 시장이 올해부터 성장세로 돌아설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면서 자체 모듈 생산 역량을 갖춘 한화솔루션이 업황개선의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주택용 태양광 대여 사업은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창출하는 모델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미국 주거용 태양광 시장은 전년대비 14%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택 태양광 대여 사업(TPO) 확대가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TPO는 법인이 직접 가정에 분산형 태양광을 설치 미 대여해주고 투자세액공제(ITC) 및 보너스 혜택을 챙기는 사업이다.

한화솔루션은 미국 주택용 태양광 에너지 사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 있다. 지난해 TPO 상품을 출시한 이후 미국 자회사 엔핀을 통해 미국 6개 주에서 1만 건 이상의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소비자는 초기 설치 비용



한화솔루션이 완공한 미국 캘리포니아 주 소재 태양광 발전소(50MW)

/한화솔루션

부담 없이 태양광 설비를 이용하고 한화솔루션은 장기적인 전력 판매 수익을 올리는 구조다.

업계에서는 시장 구조 변화와 주거용 비중 확대를 고려할 때 중장기적으로 한화솔루션이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자회사 한화큐셀은 미국 주거용 시장에서 지난 2020년부터 꾸준히 점유율 1위를 유지하고 있어 향후 성장 여력이 충분하다는 평가다.

아울러 최근 미국의 인플레이션 여파로 가정용 전기요금이 크게 오르면서 주택용 태양광 수요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한화솔루션은 1분기 신재생에너지 부문 매출 1조5992억원, 영업이익 1362억원을 기록하면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모두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다. 미국 주택용 에너지 사업이 수익성 개선을 견인한 것이다.

올해 말 미국 신규 공장 가동에 대한 기대감도 이어지는 모습이다. 한화솔루션 가스터빌 공장이 완공되면 태양광 사업 수직계열화를 통한 경쟁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차현정 기자 hyeon@

청호나이스, 매트리스·프레임 라인업 강화

‘William J·미니멀’ 등 신제품 선보

청호나이스가 침실 인테리어를 완성할 수 있는 매트리스와 프레임 신제품을 잇따라 선보이며 시장을 추가 공략하고 있다. 특히 우수한 원단과 탄탄한 내장재 등을 적용한 다양한 제품 라인을 공개하며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8일 청호나이스에 따르면 새 매트리스는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고객들이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William J 하드 ▲William J 미디엄-하드 ▲듀얼 드림 ▲듀얼 코지 ▲온리 드림 5가지로 구성했다. 프레임도 ▲패브릭 템바보드 ▲호텔식 패브릭 ▲미니멀 ▲쿠션형 헤드보드 4가지로 이뤄져 있다.

‘William J’는 고품질의 삼중 프리미엄 원단 적용으로 편안함과 안전성을 동시에 제공하며 가벼우면서도 단단한 티타늄 포켓 스프링으로 강력한 지지력을 갖고 있다. ‘듀얼 드림’은 친



청호나이스의 고급형 매트리스 ‘William J’.

환경 모달 원단과 항균·소취 원단을 사용해 민감성 피부도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다. ‘듀얼 코지’의 경우 부드러운 촉감과 내구성이 강한 고밀도 삼중직 니트원단을 적용했다. ‘온리 드림’은 커버분리 기능으로 위생적인 관리가 가능하며, 삼중직 니트 원단과 내부 통기를 원활하게 해주는 통기 베이스 폼을 적용해 산뜻한 숙면을 선사한다.

청호나이스의 신규 프레임은 E0등급 및 오코텍스 스탠다드 100 2등급 인증을 받은 원단과 소재 등을 사용했다.

/김승호 기자

HJ중공업, ‘탐해3호’ 보증수리 완료

유상철 대표 “선박건조 분야 역량 발휘”

HJ중공업은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최첨단 3D·4D 물리탐사 연구선 탐해3호의 정기 보증수리를 통해 품질과 사후관리에서 극찬을 받았다.

이번에 보증수리를 마친 탐해3호(6862t급)는 대륙붕과 대양 및 극지 등 전 세계 모든 해역에서 해저 자원탐사를 수행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최첨단 3D·4D 물리탐사 연구선이다. 승조원 50명을 태우고 최대 15노트(28km/h)로 운항할 수 있으며, 항속거리가 3만 6000km에 달해 북극과 남극을 왕복하

며 연구활동을 펼칠 수 있는 명실상부한 ‘국가대표 바다 위 연구소’다.

지난 3월 20일 정기 보증수리를 위해 HJ중공업 부산 영도조선소에 입거된 뒤, 선체 바닥과 외부 도장, 축계 점검, 기타 승무원 불편사항 점검과 각종 수리 및 개선 작업을 진행했다.

유상철 HJ중공업 대표는 “아라온호와 탐해3호를 비롯한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선을 완벽히 건조해 국가 위상 제고에 이바지해왔다”며 “앞으로도 차세대 해빙연구선 등 최첨단 기술 집약형 선박 건조 분야에서 역량을 발휘하겠다”고 말했다.

/이승용 기자

SK케미칼, 1분기 흑자전환 성공

매출 5366억, 영업이익 242억

SK케미칼이 화학업계 불황에도 1분기도 성장세를 기록해 흑자전환에 성공했다.

SK케미칼은 연결 기준 1분기 영업이익이 242억원으로 지난해 동기(영업손실 126억원)대비 흑자 전환했다고 8일 공시했다.

매출은 5366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40.9% 증가했고 순이익은 211억원으로 흑자로 돌아섰다.

주력 품목인 고기능성 플라스틱 코폴리에스터 제품군의 시장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동시에 운영 효율화(O/I)로 외형과 수익성이 함께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

코폴리에스터는 폴리에틸렌 테레프

탈레이트(PET) 등 기존 폴리에스터 계열 소재 대비 높은 내열성, 내화학성 등 물성을 강화한 소재로 빠르게 시장 성장이 이뤄지고 있지만,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해 상용화에 성공한 기업은 소수에 불과하다.

고정석 SK케미칼 경영지원본부장은 “시장 상황이 빠르게 변화하고, 생산 경쟁이 과열되고 있는 현 화학 업계에서는 후발 주자가 쉽게 진입하기 어려운 독자적인 영역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승용 기자



2025.03.01 ~ OPENRUN 루미나아트홀

원작 황보름 <어서 오세요, 휴남동 서점입니다> 클레이하우스

총괄 프로듀서 황기현 | 각색·연출 박예슬 | 작곡·음악감독 김은지 | 안무감독 윤이나 | 무대디자인 주미영

조명디자인 손정은 | 음향디자인 안형록 | 의상디자인 백은경 | 무대제작 드림아트컴퍼니(주) | 제작PD 문혜인 | 무대감독 박민서 | 컴퍼니매니저 소우현

출연 서지아 김재은 표혜미 서은교 | 황수빈 최우성 석우성 이규진 | 한재우 김도경 공민규 김록현 | 박나연 현지수 오미준 김정은 | 임영식 이선 박형석 최윤재

주최·제작 극단 지우 협찬 yes24 사파게절 티켓문의 interpark 티켓 공연문의 02.332.4902



2025
JIWOO
Production
Presents

“유심 교체해드려요”… 해킹사태 악용 피싱 기승

기기 보안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원격제어 등 앱 4종 설치 유도
SKT, 12일까지 유심포맷 적용

SK텔레콤의 중앙 서버 해킹사태 이후 유심(USIM) 교체 등을 빌미로 한 피싱문자 등이 쏟아지고 있어 2차 피해가 우려된다.

SK텔레콤은 해킹사태 20여 일만에 ‘유심보호서비스’ 자동가입을 100% 완료했다고 8일 밝혔다. 그러나 현재까지 알려진 SK텔레콤 해킹사태 관련 보이 스피싱 앱은 4종 이상이며 수법 또한 수습가지에 이른다.

보안업계는 SK텔레콤의 공식 홈페이지 주소나 전화번호가 명시되지 않은 URL(bit.ly 등) 접속을 피하고, ‘직접 방문해 보안을 점검하겠다’는 식의 제안을 받았을 경우 특히 주의하라고 당부하고 있다.

8일 <메트로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해보면 SK텔레콤 해킹사태 이후 빚어진 혼란을 이용한 악성 앱(APP) 보이 스피싱 공격이 실제로 시도된 현황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해킹 사고는 지난 4월 19일, 가입자 인증시스템(HSS)에 저장돼 있던 이용



SK텔레콤 유심 교체 수요와 해킹 불안을 노린 보이 스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AI로 생성한 이미지

자의 휴대전화번호, IMSI(가입자식별 번호), 유심 인증기 등 총 25종의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며 발생했다.

해킹소식이 알려진 후 유출 내용을 토대로 유심복제와 이를 바탕으로 한 금융정보 및 자산 탈취가 가능하다는 정보가 전해지자 SK텔레콤 가입자들은 4월 28일부터 유심 교체에 나섰다. 그러나 유심 교체 수요가 폭증하면서 일선 대리점에서는 수요를 감당할 수 없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당시 공급된 유심의 수는 소형 대리점의 경우 100~200개, 대형 대리점의 경우 200~1000개 전후였

다. SK텔레콤은 유심 교체를 원하는 가입자들의 편의를 돕기 위해 유심 교체 예약 웹 페이지를 운영했다.

보안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 관련 내용을 토대로 한 악성 앱 보이 스피싱이 기승을 부린 시기는 5월 초 전후다.

피싱방지 솔루션 ‘페이크파인더’를 운영하는 에버스핀에 따르면 해킹 사고 이후 등장한 악성앱 피싱 시나리오는 피해자의 심리를 철저히 계산해 설계된 공격 형태를 띠고 있다. 주로 “SKT 유심 해킹 피해 여부를 점검해드리겠습니다”, “기기가 해킹된 것 같다”는 식으로 접근하며, 사

용자의 기기 보안을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원격 제어 앱 설치를 유도한다.

에버스핀이 확보한 실제 설치 기록에 따르면, 해당 앱 4종(AnyDesk, 알집, 피해구제국, SK월더스)은 4월 20일 단 10분 이내에 순차적으로 설치되었으며, 공격의 자동화와 속도 또한 매우 높은 수준으로 분석되어, 피싱범죄 조직의 준비된 시나리오와 치밀함을 확인할 수 있다.

에버스핀은 “현재 해당 악성앱들에 대한 정보를 KISA에 신속히 전달한 상태”라고 밝혔다. 또 “통신사 해킹 사고와 같은 대규모 사회적 혼란 속에서 피싱범죄는 항상 빠르게 진화하고 있으며, 유사사례는 향후로도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이라며 시스템 기반 보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보이스피싱 사고와 해킹사태로 인한 다양한 범죄 피해를 막기 위해 SK텔레콤은 12일까지 유심포맷(소프트웨어 개선 방식의 유심 초기화)도 적용할 예정이다. 또 유심 물량이 대량 입고되기 전 빠르게 교체를 원하는 고객을 지원하기 위해 이심(eSIM) 교체 프로세스를 간편하게 개선하기로 했다. 더불어 유심 불법복제 피해 발생시 전액 보상할 예정이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KT커머스가 AI 가격 협상 솔루션인 ‘네고 위즈’를 자사 통합구매대행 서비스에 도입했다. /KT

KT커머스 AI 가격협상 솔루션 구매대행 서비스 도입

KT커머스는 자사의 방대한 구매 데이터를 기반으로 개발한 생성형 인공지능(AI)기반의 가격 협상 솔루션 ‘네고 위즈(Nego-Wiz)’를 자사 통합구매대행 서비스에 도입한다고 8일 밝혔다.

네고 위즈 솔루션은 AI를 기반으로 구매자와 판매자 간 가격 협상 과정을 자동화한다.

AI가 해당 상품의 경쟁도, 과거 거래 정보, 구매 규모 등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최적의 협상 전략과 목표 가격을 도출하고, 대화형 챗봇이 상대와 협상을 진행한다.

KT커머스는 향후 구매 데이터를 기반으로 협상 알고리즘의 정확도와 전략을 개선해 네고 위즈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지속적으로 높일 계획이다.

/김서현 기자

1분기 기업 실적

카카오, 매출 1.8兆… 6% 줄어

플랫폼·커머스·기타 매출은↑
슈퍼앱 위한 ‘발견영역’ 도입
AI 카나나, 순차적 공개 예정

카카오는 2025년 1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6% 감소한 1조 8637억원을 기록했다고 8일 밝혔다.

사업 부문별로 보면 플랫폼 부문 매출은 4% 증가한 9930억원이다. 톱비즈 매출은 7% 늘어난 5533억원이며, 이 중 광고 매출은 3% 증가한 2861억원이다. 비즈니스 메시지는 11% 성장했고, ‘브랜드 메시지’ 상품은 5월 출시 예정이다.

커머스 매출은 12% 증가한 2672억원으로, 선물하기와 톱딜 거래액은 각각 4%, 5% 늘었고, 전체 통합 거래액은 2조 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모빌리티·페이 등 플랫폼 기타 부문 매출은 3% 증가한 3656억원이다. 주차·퀵서비스의 성장이 이어졌고, 페이는 전 분야에서 두 자릿수 성장

률을 보였다. 콘텐츠 부문 매출은 16% 감소한 8707억원을 기록했다.

뮤직 매출은 6% 감소한 4379억원, 스토리는 6% 감소한 2126억원, 미디어는 21% 줄어든 751억원을 각각 기록했다.

영업비용은 1조 7583억원으로 6%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12% 줄어든 1054억원, 영업이익률은 5.7%를 기록했다.

카카오는 카카오톡을 ‘슈퍼앱’으로 진화시키기 위해 하반기 ‘발견 영역’을 도입해 체류 시간을 늘릴 계획이다.

AI 부문에서는 ‘카나나’에 대한 비공개 베타 테스트(CBT)를 시작으로, 쇼핑·로컬 중심의 버티컬 AI, 생성형 검색, 오픈AI와 공동 개발한 서비스 등을 순차적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정신아 대표는 “AI가 카카오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다양한 실험과 시도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서현 기자

LG U+, 가입자·B2B 확대에 성장세

영업·서비스수익, 영업이익 늘어
비효율 사업 정리로 비용 효율화

LG유플러스가 2025년 1분기에도 유·무선가입자 증가와 인공지능(AI) 기반 사업 확장에 힘입어 전 부문에서 고른 성장세를 기록했다.

LG유플러스는 2025년 1분기 K-IFRS 연결 기준으로 영업수익 3조 7481억원, 서비스수익 2조 9389억원, 영업이익 2554억원을 기록했다고 8일 밝혔다. 전년 동기 대비 각각 4.8%, 1.6%, 15.6% 증가한 수치다. 성장배경에는 유·무선가입자 증가, AI 기반 B2B 인프라 사업 확대, 비효율 사업 정리에 따른 비용 효율화가 있었다.

광고선전비 증가로 마케팅비는 1.6% 늘어난 5558억원이며, 설비투자(CAPEX)는 13.4% 줄어든 3331억원이다.

무선 부문에서는 수익이 2.0% 증가한 1조 6121억원, 서비스수익은

2.4% 증가한 1조 5428억원이다. 전체 무선 가입회선은 2907만 5000개로 10.7% 증가하며 12분기 연속 두 자릿수 성장세를 이어갔다.

MNO(이동통신 부문) 가입은 2051만 3000개, MVNO(알뜰폰 부문) 가입은 856만 2000개를 기록했다. 특히 5G 핸드셋 가입자는 819만 6000개로 14.0% 늘었고, 해지율은 1.09%로 개선됐다.

스마트홈 부문 매출은 2.4% 증가한 6306억원이다. 초고속 인터넷 수익은 6.9% 상승한 2965억원, 가입회선은 539만 6000개로 3.4% 증가했다. IPTV는 가입회선이 561만 1000개로 2.4% 늘었지만, 수익은 1.2% 감소한 3301억원이다.

기업인프라 부문은 2.1% 증가한 4097억원을 기록했다. IDC 수익은 873억원(2.1% 증가), 솔루션 사업은 1189억원(0.4% 증가), 기업회선 수익은 2035억원(3.1% 증가)이다.

/김서현 기자

네이버 부산도시철도 운행정보 지도서 실시간 제공

네이버가 7일부터 네이버 지도에서 부산도시철도 1~4호선의 실시간 도착과 열차 위치 정보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네이버는 그동안 전철 실시간 도착 및 위치 정보를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하철에 한해 제공했다.

사용자는 열차가 시간표와 다르게 운행되는 경우에도 네이버 지도를 통해 부산도시철도의 실시간 열차 위치와 다음 열차 도착 시간 등 운행 현황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열차 증편, 지연, 운행 시간 연장 등과 같은 이례적인 상황도 실시간으로 안내되어, 보다 정확하고 편리한 이동 계획 수립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김서현 기자

라바웨이브-법무법인 이유 공식 유튜브 채널에 몸캠피싱 대처법 게시

디지털 범죄 대응 전문기업 라바웨이브는 법무법인 이유와 협력해 몸캠 피싱 범죄에 대한 기술적·법률적 대처법을 담은 영상을 공식 유튜브 채널에 게시했다고 8일 밝혔다.

해당 영상은 몸캠피싱 범죄의 정의부터 가해자 처벌 범위, 협박 상황에서 피해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수칙, 해킹 앱 방치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등을 폭넓게 다룬다. 피해자들이 가장 혼동하기 쉬운 영상 삭제와 유포 방지의 차이점, 허위·사기업체를 피하는 방법 등 실효적 정보 제공에 초점을 맞춘 게 특징이다. /김현정 기자

메타빌드, ‘라몬’으로 공공·의료 서비스 시장공략

NIA와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출시 앞뒤

인공지능(AI)·연계 소프트웨어(SW) 전문기업인 메타빌드는 자체 개발한 생성형 AI 모델 ‘라몬(LLaMON)’의 검색증강생성 및 대화형 코드 생성, 에이전트 등의 기술을 공공·의료 서비스로 업그레이드해 AI 특화 서비스 시

장 공략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메타빌드가 지난 2022년부터 단계적으로 구축·운영해온 국가 지식정보통합플랫폼 ‘디지털 집현전 서비스’에는 105개 기관의 지식 정보 2억 4000만 건이 탑재됐다. 대화형 채팅과 맞춤형 검색, 문서 요약 및 질의응답 서비스에 자체 개발한 생성형 언어모델과 검색증

강생성 기술을 적용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NIA)은 메타빌드와 손잡고 질의응답을 통한 노코드 기반 연계서비스 개발 및 이상탐지 기능을 제공하는 ‘AI 연계 어시스턴트’ 기술을 실증 중이다. 메타빌드는 AI 연계 어시스턴트가 정부 24,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 디지털플랫폼정부 허브 등 국가 주요 데이터·서비스 연계 플랫폼에 확대 적용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메타빌드와 협력해 건축허가, 경제, 교통을 포함, 18개 분야·236종의 민원업무 상담 내용을 분석하고 답변을 생성하는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출시를 앞두고 있다.

자사 솔루션을 적용해 행정 업무 투명성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고 메타빌드는 전했다. /김현정 기자 hjk1@

순익 50% 꺾충... 박현주의 뚝심 ‘금융의 엔비디아’ 일궈다

(미래에셋금융그룹 회장)

MIRAE ASSET
미래에셋증권

미래에셋증권, 1분기 순익 2582억
해외법인 세전이익 1196억 성과
해외주식 브로커리지 수익 등
전부문서 ‘A+’ 영업 성적표 받아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이 미래에셋증권을 ‘금융의 엔비디아’로 일궈 냈다. 국내보다 해외에 머무는 날이 더 많은 정도로 해외시장 확대에 공을 들이고 있는 박 회장의 노력 덕분에 1분기 미래에셋증권은 해외법인 실적과 해외주식 브로커리지, 자산관리(WM) 수수료 수익 등 전부문에서 ‘A+’라는 영업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8일 미래에셋증권은 연결기준 1분기 세전이익이 346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

국제경영학회 연례학회에서 아시아 금융인 최초로 올해의CEO에 선정된 박현주 미래에셋금융그룹 회장.

/미래에셋증권



서울 종로구 미래에셋 본사.

/미래에셋증권



비 약 50% 증가했다고 밝혔다. 당기순 이익은 2582억원, 자기자본은 12조2000억원으로 집계됐으며, 전환산 자기자본 이익률(ROE)은 8.5%를 나타냈다.

해외법인 세전이익은 1196억원으로 분기 기준 최대치를 경신했다. 선진 시장 중심의 실적 성장과 함께 AI 및 혁신 기업에 대한 자기자본투자(PI) 포지션의 가치 상승이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각국 시장에 맞춘 WM과 트레이딩 전략도 실적 개선에 기여했다.

금리 인하기·고배당 매력 ‘리츠 ETF’ 뜬다

‘TIGER 리츠부동산인프라’ 등
관련 ETF 한 달간 5%대 상승세
위축심리 개선 ‘대안 투자처’ 부각

지난해 대규모 유상증자 여파로 급락했던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상장지수펀드(ETF)가 금리 인하 기대와 고배당 매력 부각 속에 반등세를 보이고 있다.

8일 코스콤 ETF체크에 따르면 ‘TIGER 리츠부동산인프라’는 최근 한 달간 5.63% 상승했다. 이 ETF는 맥쿼리인프라, SK리츠, ESR켄달스퀘어리츠, 롯데리츠 등을 주요 종목으로 담고 있는 대표적인 인프라펀드다.

마찬가지로 맥쿼리인프라, SK리츠, ESR켄달스퀘어리츠 등을 주요 종목으로 담고 있는 ‘KODEX 한국부동산리츠인프라’는 같은 기간 5.49% 상승했다. 이외에도 ‘PLUS K리츠’

(5.87%), ‘KIWOOM 리츠이지스액티브’ (5.36%) 등이 강세를 보였다.

리츠 ETF에 대한 개인 투자자들의 순매수세도 이어지고 있다. 최근 한 달간 개인들은 ‘KODEX 한국부동산리츠인프라’를 223억원 순매수했으며, ‘TIGER 리츠부동산인프라’를 48억원 순매수했다.

지난해 유상증자 여파로 위축됐던 투자 심리가 개선되면서 안정적인 배당 수익을 제공하는 리츠 ETF가 대안 투자처로 재부각되고 있다. 실제로 리츠 ETF의 연간 분배율은 6~9% 수준으로, 금리 인하 국면에서 꾸준한 배당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상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국은행은 올해 기준금리를 세 차례 이상 인하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당초 상반기 두 차례 인하 전망이 우세했으나, 경기 지표 부진과 추가경

정예산(추경) 집행 지연으로 하반기 추가 인하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리츠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이달 초 밀라노 출장 중 “기준금리 인하를 의심하지 말라”며 경기 상황에 따라 금리를 충분히 낮출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그는 “빅 컷(한 번에 0.5%포인트 인하) 여부나 인하 횟수는 5월 경제 전망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금리가 인하될 경우 리츠의 차입 비용이 줄어들어 기존 부채의 이자 부담이 경감되고, 신규 자산 매입 및 개발 사업을 위한 자금 조달이 더욱 용이해진다. 이에 따라 리츠의 수익성 개선과 함께 추가적인 자산확장이나 리파이낸싱을 통한 성장 전략이 가능해진다는 전망이 나온다.

/원관희 기자 wkh@

하나증권, 시각장애 학생들과 ‘봄나들이’

치즈·피자 만들기 체험형 사회공헌

하나증권이 시각장애 학생들과의 실질적인 교감을 이어가기 위한 체험형 사회공헌 활동을 펼쳤다.

하나증권은 7일 인천치즈스쿨에서 서울맹학교 학생들과 함께하는 봄나들이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서울어린이대공원, 서울랜드에 이어 세 번째로 마련된 체험 프로그램으로, 올해로 3년째 이어지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하나자산운용 임직원도 동참해 하나금융그룹의 협업 사회공헌 형태로 진행됐다. 총 36명의 서울맹학교 학생들과 하나증권·자산운용 임직

원들은 1:1 멘토-멘티로 짝을 이뤄 치즈와 피자 만들기 체험을 함께했으며, 이후 직접 만든 음식을 나누며 친밀한 시간을 가졌다.

또한 하나증권과 하나자산운용 임직원들은 학생들과 교사들을 위해 점자 라벨이 부착된 텀블러를 선물하고, 노후 교육 기자재 교체를 위한 지원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

강성욱 하나증권 대표이사는 “한 번의 봉사도 소중하지만, 인연을 지속적으로 이어가는 것이 더 큰 의미를 가진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허정윤 기자

우리투자증권 IRP 수익률 업계 1위

우리투자증권이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에 공시된 올해 1분기 ‘개인형 퇴직연금(IRP) 원금비보장 수익률’에서 5.28%를 기록하며, 퇴직연금 판매 증권사 중 가장 높은 수익률을 달성했다고 8일 밝혔다. 동일 부문에서 최근 5개 분기 중 4개 분기에서 증권사 최고 수익률을 달성했으며, 최근 8개 분기 연속 전환산 수익률 5% 이상을 유지하는 등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우리투자증권은 이러한 성과가 글로벌 성장자산 중심의 분산투자 전략과 저비용 운용구조를 활용한 장기 복리투자기 지원에 따른 것으로 평가했다.

/신하은 기자 godhe@

“위성으로 부가가치 창출… 글로벌 정조준”

코스닥 CEO 인터뷰

남 명 용 루미르 대표

“위성을 통해 데이터를 만들고, 그 데이터를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이 되겠다.”

남명용 루미르대표는 인터뷰에서 기업의 정체성과 비전을 이렇게 요약했다. 인공위성 개발부터 데이터 서비스까지 수직계열화된 역량을 갖춘 국내 우주기술 전문기업 루미르는 현재 초소형 고해상도 SAR(Synthetic Aperture Radar) 위성 ‘LumirX-1’ 발사를 앞두고 글로벌 시장을 정조준하고 있다.

위성 전장부품·시스템 등 기술확보 내년 초소형 위성 ‘LumirX-1’ 발사 이후 민간·공공 데이터서비스 개시 작년 매출 143억, 전년비 18% 증가

지난 2009년 설립된 루미르는 위성 전장품부터 시스템 통합에 이르기까지 자체 기술을 확보한 기업이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차세대중형위성, 달탐사선 다누리호 등 다수의 국가 우주개발 사업에 참여하며 기술력을 입증해왔다. 특히, 지난해 10월 코스닥 상장을 계기로 기술 신뢰성과 시장 기반을 동시에 확보하며 본격적인 성장세에 접어들었다.

루미르의 핵심 사업은 크게 세 가지다. ▲정부 우주 중심의 위성 제조 ▲SAR 영상 기반 데이터 서비스 ▲위성 기술을 응용한 민수 산업이다. 위성 제조 부문에서는 국가 우주개발 사업 참여를 통해 안정적인 수익 기반을 마련했고, 2026년 첫 발사를 앞둔 LumirX-1을 통해 민간·공공 데이터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남 대표는 “현재 고품질 위성영상 수



요는 늘고 있지만, 미국·유럽 소수 기업의 공급 한계로 가격과 접근성이 제약돼 있다”며 “루미르는 고해상도 영상의 대중화와 데이터 기반 정보 서비스 확산에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루미르는 민수 사업도 안정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위성 기술을 기반으로 선박용 연료제어 솔레노이드 밸브를 개발해 국내 최대 조선사에 독점 납품 중이며, 글로벌 엔진 제조사와의 협업을 통해 공급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해당 사업은 지난해 기준 35억7000만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27.5% 성장했다.

지난해 전체 매출은 143억원으로 전년 대비 17.8% 증가했다. 위성 사업 부문은 약 107억원으로 14.8% 성장했으며, 수익성 역시 대폭 개선됐다. 루미르는 자체 위성 발사 이후 연매출 500억원 이상의 고성장 구조로의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술 인재 확보도 루미르가 중시하는 전략 중 하나다. 남 대표는 “카이스트(KAIST),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협력해 전문 인재를 양성해왔다”고 설명했다.

경영철학 역시 기업의 사회적 기여에 방점을 둔다. 남 대표는 “우리가 만드는 위성이 국민의 안전과 국방, 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며 “루미르는 대기업처럼 외형은 크지 않지만, 기술력과 구성원의 자부심만큼은 최고 수준을 지향한다”고 전했다.

/김대환 기자 kdh@

무협, 美 232조 관세조치 반대 반도체·의약품 제외 강력 요청

美, 수입품 안보 위협 판단
韓 “대미수출은 상호보완적”
반도체 장비 등 오히려 흑자
이중 관세 시 투자 차질 우려

한국무역협회(KITA)가 미국의 관세 파고에 맞서 대응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구리제품과 반도체, 의약품 등 주요 품목을 둘러싼 규제 움직임에 대응해 업계 보호를 위한 활동에 적극 나서는 모습이다.

무역협회는 수입 반도체 및 의약품에 대한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국가 안보 위협 조사에 대응해 우리 무역업계 의견을 담은 공식 의견서를 지난 7일(현지시간) 미 상무부에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미국은 지난 4월 1일 수입 반도체 및 의약품에 대해 1962년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국가안보 위협 조사를 공식 개시하고, 이달 7일까지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한 바 있다.

무역협회는 의견서를 통해 한국의 반도체 및 의약품 수출이 미국의 국가 안보를 저해할 위험이 없어 232조 조치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뜻을 전했다. 반도체의 경우 한국의 대미 수출은 대부분 범용재 성격의 메모리 반도체이며, 미국은 우리에게 반도체 장비 등 고부가 제품을 수출하며 교역에서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 /한국무역협회

제로 미국의 대한국 반도체 장비(HS 8486) 수출은 지난해 기준 39억3000만 달러로 대세계 수출의 20.1%를 차지하며, 29억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했다.

또한 불확실성으로 인한 우리 반도체 소재 및 장비 기업의 대미 투자 위축에 대한 우려도 전달했다. 미국 내 반도체 설비투자(CAPEX) 중 한국 기업이 37%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나 관세 조치로 미국산 반도체의 원가가 상승하고 핵심 소재 및 장비의 조달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투자가 오히려 위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스마트폰·노트북·디스플레이

모듈 등 광범위하게 설정된 반도체 파생제품의 대상 범위를 축소하고, 핵심 광물 관련 232조 조사대상으로도 언급된 반도체 웨이퍼·스마트폰 등에 대해서는 업계 부담을 고려해 관세가 이중으로 부과되지 않도록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의약품의 경우 한국바이오제약사들은 저렴한 의약품을 공급해 미국 내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며, 미국 원료의약품을 기반으로 완제의약품을 생산하거나 미국 기업의 위탁을 받아 생산하는 등 미국 기업과 활발하게 협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미국산 원료의약품을 임가공하여 생산한 완제의약품, ▲미국 내 의약품 접근성 제고에 기여하는 저렴한 바이오시밀러 및 제네릭 의약품, ▲미국 바이오제약 기업이 한국 기업에 위탁생산을 요청한 바이오의약품 등에 대해 관세 면제를 요청했다.

한국무역협회 조성대 통상법무대응팀장은 “미국과는 득실을 따질 수 없는 상호보완적인 동맹관계이며 품목 및 기업별로 놓인 상황이 다름에도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관세조치는 부작용이 크다”며 “통상조치로 인한 우리 기업의 부담을 지속적으로 전달하는 한편, 주요 이해관계자들과 협의를 통해 관세조치 완화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캄보디아 물 이용·관리 기반시설 확충 협력

환경부, ‘물 산업 협력 사절단’ 활동

우리나라와 캄보디아 간 물산업 협력 체계가 강화된다. 환경부는 8일 우리 기업들의 캄보디아 진출을 위한 정부-정부(G2G), 정부-민간(G2B)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 5~7일(현지시간) 김완섭 장관을 단장으로 한 ‘물산업 협력 사절단’을 프놈펜에 파견했다. 캄보디아와 물관리 협력사업을 새로이 발굴해 국내 기업들의 캄보디아 진출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기존에 프랑스, 일본 등이 중심이던 캄보디아 물관리 시장에 우리 기업들이 본격 진출하는 교두보를 만들었다는 의미가 있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사절단에는 환경부 외에도 물기업 18개사를 비롯해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한국물산업협회의 등이 참여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김 장관은 훈 마넛 캄보디아 총리를 만나, 양국이 협력해 홍수대응 및 농업용수 확보, 톤레삽 호수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메콩-센강 연결수로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도시화·산업화에 따라 급격히 증가하는 깨끗한 물수요에 대응하여 정수장, 저수지 등 물관리 인프라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또 현지수자원기상부, 산업과학기술혁신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 장관들과 이를 구체화하기로 했다. 씨엠립(앙코르와트 소재지) 등 성장하는 도시에서의 정수장 확충, 누수 최소화 등을 위한 스마트 상수도 체계 확대를 공동으로 추진한다. 인공지능(AI) 홍수예보 체계, 소수력발전 및 매립지를 활용한 온실가스 감축사업 등도 협력 대상이다.

김 장관은 국제기구 관계자 등과 다자 면담도 가졌다.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유엔개발계획(UNDP),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 지역사무소장들과 만나 캄보디아 개발사업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행사에서 우리 기업 18곳은 기업별 주력 기술과 상품을 발표(18개 중 12개)했다. 우리 기업과 캄보디아측 관계자 간 1:1 기술상담회에서는 우리나라가 강점을 보이는 스마트 관망관리 기술, 하수도 분야 선진기술 등에 대해 소개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베트남 쌀 산업에 한국형 농업모델 본격화

농식품부·농어촌공사

타이빈성 ‘쌀 산업 협력’ 결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가 베트남 현지 벼농사 생산성 향상을 위한 국제농업협력에 적극 나선다. 우리 측은 지난달 28일 베트남 타이빈성에서 ‘홍강 델타(삼각주) 쌀 가치사슬 향상 사업’ 준공식을 개최했다.

8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 사업은 농식품부와 농어촌공사가 지난 2019년부터 6년간 추진한 국제농업협력 과제로 총사업비 53억 원이 투입됐다. 한국형 농업협력 모델을 적용해 쌀 생산, 저장, 가공, 유통 등 쌀 산업 가치사슬(기업활동으로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과정)을 개선하고 농가소득 증대를 목표로 추진한다.

이날 준공식에는 농식품부와 농어촌공사를 비롯해 베트남 농업환경부(MAE), 국립농업계획발전연구소(NIAP

P), 타이빈성 인민위원회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양측은 사업 성과를 공유하고, 공식 인계인수 절차를 진행했다.

홍강 델타는 베트남 북부 홍강 하류와 타이빈강이 만나는 곳에 위치한 비옥한 삼각주 지역이다. 수도 하노이 역시 이 지방에 속한다. 이곳은 쌀 생산에 유리한 지형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그간 벼 재배 기술이 낙후돼 쌀 수확량이 적었고 수확 후 건조나 저장 없이 바로 판매하면서 품질도 저하됐다.

우리 정부는 한국형 농업협력 모델인 ‘쌀 가치사슬 고도화’와 ‘농민 조직화’에 주력했다. 영농교육센터와 시범농장을 조성해 재배와 품질관리, 시장대응 역량을 높이는 교육을 시행했고 농업인 역량을 강화했다. 무엇보다 쌀 생산, 가공, 유통 전 과정을 개인에서 협동조합 중심으로 전환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NATO 국제 사이버보안 합동훈련 참가

한전, 전산망 침투 실시간 방어 수행

한국전력공사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주관 국제 사이버보안 합동훈련에 5년 연속 참가하며 에너지분야 사이버 공격 대응 역량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린다.

한전은 5일~9일까지 NATO 사이버방위센터가 주관하는 국제 사이버보안 합동훈련인 ‘락드실즈(Locked Shields) 2025’에 대한민국·캐나다 연합훈련팀 일원으로 참가한다고 8일 밝혔다.

우리나라는 한전을 포함해 국정원, 국가보안기술평가소 등 47개 기관 170여명 규모의 훈련팀을 구성했다. 이번 훈련은 공격팀과 방어팀으로 나뉘 실

시간 사이버 공격·방어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격은 사이버방위센터가 수행하고, 40개 국가로 구성된 17개 팀이 방어팀 역할을 맡아 경쟁한다. 방어팀은 기술적인 방어 역량뿐 아니라, 사이버 위기대응과 관련한 상황보고체계, 언론대응, 법률전략 등 다양한 정책적 요소에 대한 대응 역량도 종합적으로 평가받는다.

한전은 자체 사이버보안 경진대회 입상자를 중심으로 구성된 정보보안 우수인력이 방어팀 일원으로 참가해 에너지인프라 등 가상의 시스템에 대한 공격팀의 전산망 침투 시도를 실시간으로 방어하는 역할을 주도적으로 수행한다.

/세종=한용수 기자

‘극한 환경’ 전디는 차세대 BESS 개발

전기안전공사

산업부 국책과제 주관기관 선정

폭염 등 버티는 안전기술 최초 고안

한국전기안전공사는 배터리에너지 저장장치(BESS) 안전기술 개발을 위한 ‘극한 환경 대응 차세대 BESS 고신뢰성 검증 및 안전기술 개발’ 국가연구사업의 주관기관으로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BESS는 배터리에 에너지를 저장했다가 필요한 때 사용하는 시스템을 말

한다. 보통 발전시스템과 연계해 전력을 저장했다가, 수요가 급증하거나 발전량이 부족할 때 전력 공급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활용된다.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 등 기후에 따라 생산량이 달라지는 재생에너지의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한국전기안전공사 전기안전연구원은 국산 BESS 국제적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극한 환경(-40℃~80℃)에서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차세대 BESS 안전기술을 세계 최초로 고안했고, 이를 실용화하

기 위한 공모에 참여해 올해 386억원 규모 국가연구사업 수주에 성공했다.

전기안전공사는 주관기관 선정에 따라, 삼성SDI와 협업해 극한 환경에도 대응이 가능한 고신뢰성·고안전성 차세대 BESS 표준모델 개발에 나선다. 2028년까지 낮은 에너지손실률과 자가진단, 자가복구 기능 등을 갖춘 표준모델 시제품을 개발, 글로벌 BESS의 새 시장을 열고 국내 기업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 선점을 지원할 계획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서부발전, 전력공급 체계 민관 합동점검

“자율안전관리 체계 확립”

한국서부발전이 전력 공급 체계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대규모 재난과 중대재해에 대비한 현장 점검을 추진한다. 서부발전은 오는 6월 13일까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에 참여한다고 8일 밝혔다. 서부발전은 이번 점검에서 모든 사업소의 발전설비·시설물과 사택 등의 재난 대응 실태를 점검·진단하고 위험 발생 가능성을 차단한다. 구체

적으로 점검 분야를 산업안전, 재난관리, 발전설비, 토건 시설, 화재, 유해화학물질, 신재생 에너지 등 7개로 나누고 민간 전문가를 통해 대규모 재난과 중대재해를 가정한 현장 대응체계 작동 여부와 시설 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앞서 서부발전은 지난달 말 경기 평택발전본부에서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 합동점검단과 발전 현장을 점검하는 등 사전 조치를 마쳤다.

이정복 서부발전 사장은 구성원이 능



이정복 서부발전 사장(가운데)이 태안발전본부에서 안전 점검을 하고 있는 모습. /서부발전

동적으로 참여해 모든 작업 현장에 자율적 재난안전관리 체계가 확립되도록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봄날의 노래

손병순 / 정지광

2인 기획 초대전



손병순 SON BYEONGSUN



봄을 만나러 가다
162.2x130.3 watercolor on paper 2022



정지광 JEONG JIKWANG



눈부신 일상
53.09x33.4 화선지 채색 골라주 2025

2025.5.1 Thu - 5.11 Sun **갤러리아람**

갤러리아람 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315 신안빌딩 1층 문의 02.6743.3370

관람시간 11:00 ~ 18:00 (매주 월요일 휴관)

주최 Gallery **아름**

후원 동성제약주식회사 신안개발

매년 반복되는 교권 침해… 교총 “정부·국회, 대책 마련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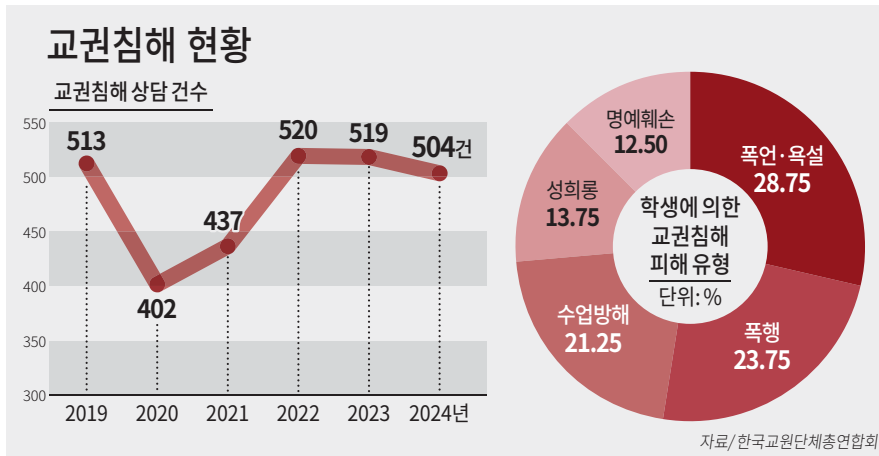
3년 연속 500건 이상 기록
‘학부모에 의한 피해’ 최다
“교원지위법 개정 등 필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한 해 접수·처리한 교권 침해 건수가 3년 연속 500건 이상을 기록했다. 학부모에 의한 피해가 208건(41.3%)으로 가장 많았고, 이중 아동학대 신고 관련만 80건에 달했다.

교총이 제44회 스승의 날을 앞두고 8일 발표한 ‘2024년도 교권 보호 및 교직 상담 활동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교총이 지난해 접수·처리한 교권 침해 건수는 총 504건으로 나타났다. 2023년 519건, 2022년 520건에 비해 다소 줄었지만 여전히 500건을 웃돌았다.

◆‘교권침해’ 학부모 의한 피해가 1위

교권 침해 주체는 여전히 학부모가 1위였다. 전체 교권 침해 접수 건수 중 ‘학부모에 의한 피해’가 208건(41.3%)으로 가장 많았고 ▲교직원



의한 피해 159건(31.6%) ▲학생에 의한 피해 80건(15.9%) 순이었다.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는 2022년 520건 중 241건(46.3%), 2023년에는 519건 중 251건(48.4%)으로 매년 절반에 육박했다.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 유형 중 가장 많은 사례는 ‘아동학대 신고’ 관련이었다.

총 208건의 교권 침해 사례를 원인 별로 살펴보면, ‘학생 지도’ 관련이 143건으로 68.8%를 차지했다. 이중 아동학

대 신고 관련은 80건으로, 전체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 208건의 38.5%에 달했다.

교총은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불이익 금지조항을 악용해 본인 마음에 들지 않는 교사를 신고하는 사례가 여전히 있다”라며 “일단 신고되면 교원은 교육청 조사, 지자체 조사, 경찰 및 검찰 수사까지 이중삼중 받느라 일상이 무너지고, 무죄·무혐의가 돼도 그 동안의 피해를 회복할 방법이 없다”고 토로했다.

◆교권5법 개정·시행에도 효과없어

학생에 의한 교권 침해 피해도 80건 접수돼 전년(75건)보다 증가했다. 학생에 의한 피해 행위 중 ‘폭행’은 2023년 8건에서 지난해 19건으로 두 배 이상 경증 늘었다. 학생에 의한 피해 유형 중 가장 많은 것은 폭언·욕설(23건, 28.8%)이었으며, 폭행은 그 다음으로 많았다.

학생에 의한 피해 총 80건 중 77.5%에 해당하는 62건은 여교사를 대상으로 나타났다.

특히, ‘폭행’의 경우 19건 중 단 1건을 제외한 18건이 여교사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성희롱 사례도 2023년에 9건에서 지난해엔 11건으로 늘었고, 이중 여교사를 대상으로 성희롱이 이뤄진 경우는 8건을 차지했다.

교총은 “2023년 서울서이초 사건 이후 교권5법이 개정·시행됐지만 교권 침해와 교원들의 고통은 체감할 만큼 줄지 않았다”라며 “교사가 교실에서 소신을 갖고 열정으로 가르칠 수 없다면 학생의 학습권도 결코 보장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원들이 악성 민원,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에서 벗어나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교원지위법 개정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정부와 국회는 즉각 법·제도 마련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교총은 지난달 28일 ‘교권 보호 9대 핵심과제’를 발표하고 대선 교육공약에 넣어 달라며 각 당에 전달한 바 있다. 교총이 발표한 교권 보호 9대 핵심과제는 ▲모호한 정서학대 조항을 구체화하는 아동복지법 개정 ▲경찰이 무혐의 판단한 아동학대 신고 사안은 검찰 불송치(아동학대처벌법 개정) ▲악성 민원은 단 한 번이라도 교육활동 침해 적용(교원지위법 개정) ▲학교폭력을 ‘교육활동 중’ 사안으로 한정(학폭법 개정) ▲학교전담경찰관 배치 확대 ▲교권보호위원회 교사위원 비율 상향 ▲단위학교 성고충심의위원회 시도교육청으로 이관 ▲학생·교원 마음 건강 증진 지원제도 정착 등이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교육부, ‘거점형 돌봄기관’ 확대 운영

전국 52곳 지정… 휴일 등 돌봄 강화
“맞춤형 정책으로 학부모 부담 완화”

다양한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 52개 거점 어린이집·유치원에서 아침·저녁, 휴일에도 돌봄을 제공한다. 교육부는 11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 돌봄 연계와 기관별 장점을 활용해 학부모 수요 맞춤형 ‘거점형 돌봄기관’을 총 52개 지정·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거점형 돌봄기관’은 유치원·어린이집 중에서 거점기관을 지정해 이른 아침이나 늦은 저녁, 휴일 등에 인근 타 기관(2개 이상) 돌봄 필요 유아를 포함해 추가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는 유아는 인근에 지정된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을 구분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올해는 돌봄기관이 부족하거나 지리적 접근성이 낮아 돌봄 서비스 이용



교육부 세종 청사

/메트로신문

이 어려운 지역을 지정해 학부모의 돌봄 공백을 우선적으로 해소한다. 각 시도교육청은 기관의 여건·위치·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모를 거쳐 총 52개 기관을 거점형 돌봄기관으로 지정했으며, 교육청·기관의 여건에 맞춰 4월부터 순차적으로 시범운영을 시작했다.

거점형 돌봄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인근의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과 사전 협의를 통해 학부모의 수요를 반영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아침·저녁 출퇴근 시간대를 지원하는 ‘맞춤형 돌봄’ 및 ‘토요(휴일) 돌봄’ 등 돌봄 수요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며, 3~5세 특성화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해 교육·보육의 질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거점기관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거점형 돌봄 지원단을 구성해 상담이나 컨설팅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박대림 영유아지원관은 “거점형 돌봄기관을 통해 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학부모의 돌봄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지역과 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학부모 수요 맞춤형 돌봄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서울시, ‘초등학생 안심벨’ 배송·배부

1차 9만3797개… 12일부터 2차 접수

서울시가 초등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해 누르면 경고음이 울려 위험 상황을 주변에 알리는 ‘초등학생 휴대용 안심벨’ 신청을 접수한 결과, 전체 606개 초등학교 중 500곳에서 신청을 완료했다.

8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신청한 500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지난 7일부터 순차적으로 ‘초등학생 휴대용 안심벨’ 총 9만3797개를 배송·배부한다.

‘초등학생 휴대용 안심벨’은 초등학생이 위급 상황 시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도록 강력한 경고음으로 주변에 긴급 상황을 알릴 수 있다. 제품은 배터리(동전 건전지) 교체형으로 제작돼, 위급 상황에만 사용하는 경우 최대 1년까지 장기간 사용이 가능하다.

이번에 배부되는 수량은 각 학교가 1·2학년 학생 수를 기준으로 신청한 수



‘초등학생 휴대용 안심벨’

/서울시

량에, 고장, 분실, 전학생 발생 등에 대비할 수 있도록 여유분을 포함해 산정됐다.

아울러, 시는 이번 1차 신청에 참여하지 못한 초등학교를 위해 12일부터 16일까지 2차 추가 신청을 받는다. 추가 신청은 각 학교별 단체 신청만 가능하며, 접수된 학교에는 별도로 배송 및 배부할 예정이다.

/이현진 기자

인천대, 이인재 총장 임명

인천대학교는 제4대 총장으로 이인재 경제학과 교수(사진)가 임명됐다고 8일 밝혔다. 인천대는 7일 오후 교육부로부터 10일자로 이인재 교수를 총장에 임명한다는 인사발령 공문을 전달받았다.

인천대는 지난해 총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올 초 정책평가단 온라인 투표와 이사회 의결을 거쳐 1위 득표자인 이인재 교수를 최종 선정하고 교육부에 단독 후보로 추천했다. 이인재 신임 총장의 임기는 오는 10일부터 2029년 5월 9일까지 4년간이다.



/이현진 기자

서울시교육청, 다문화 학생 통번역 지원

학교폭력 등 진술권·방어권 보장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에서 언어 장벽으로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통번역 지원 시스템이 도입된다.

서울시교육청 산하 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은 학교폭력, 교권 침해 사안 발생 시 다문화 학생의 진술권과 방어권 보장을 위한 통번역 지원 사업을 5월부터 시작한다고 8일 밝혔다.

서울동부교육지원청은 9일 동대문·중랑구 등 자치구 가족센터와 서울동부교육지원청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해

상시 18개 언어를 지원하는 ‘생활 통번역 인력풀’을 확보한다. 이를 통해 다문화 학생의 진술권과 방어권을 방해하는 언어 장벽 문제 해결과 함께 국내 거주 이주배경주민의 지역사회 정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미경 서울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은 “더 이상 언어 장벽이 학생의 권리를 가로막지 않도록 교육청이 지역사회와 함께 손을 맞잡을 때”라며 “이번 운영 결과를 타 교육지원청과 공유하며 제도화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포천시, 급수구역 복선화 본격 추진

수자원공사 광역 상수도 사업 연계

포천시는 한국수자원공사(K-water)가 추진 중인 광역 상수도 복선화 사업과 연계해 포천시의 핵심 급수구역에 대한 자체 복선화 계획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전국적인 상수도 악재를 완화하고, 공급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주요 광역 송수관로의 복선화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연차별 계획에 따라 오는 2029년 포천계통 낙양가압장~군내배수지 26.51km에 대한 복선화를 마칠 예정이다.

시는 이와 같은 국가사업의 흐름에

맞춰 지난해 덕소정수장 계통 광역배수지 군내~일동배수지 구간 14km의 복선화 실시설계를 완료했다.

이어 한국수자원공사의 복선화 노선과 시 차원의 자체 구간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다중 공급망 확보, 배수지 체류시간 확보, 유속 안정화를 통해 지역 수돗물 공급의 안정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특히, 시는 한국수자원공사와의 기술 협력과 정보 공유를 통해 인공지능(AI) 기반 실시간 관제 시스템을 도입하며 과학적인 물관리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포천(경기)=김용택 기자 mk4303@

‘황금연휴’ 매출 수직상승… 보릿고개 유통가에 ‘숨통’

백화점 3사 매출 전년비 20%대 ↑
이마트·롯데마트, 매출 5% 올라

패키지 예약자 30%~40% 증가
하나·모두투어 등 여행업계 특수

경기 침체로 소비자 지갑이 닫히면서 고릿고개를 넘고 있는 유통가가 5월 황금연휴 기간 매출 상승으로 잠시 숨통을 틔웠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6일 주요 백화점 3사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평균 2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롯데백화점의 경우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0% 상승률을 기록했다. 특히, 시계 및 장신구 상품 매출이 45%로 늘며 전체 매출 상승을 견인했다. 그간 경기 침체, 이상기후 등으로 부진했던 스포츠 및 남성 패션 역시 각각 35% 증가하며 장신구 다음으로 높은 매출 상승폭을 보였다.

같은 기간 현대백화점 역시 21.8%,



잠실 롯데월드몰 1층 ‘메타몽의 타임캡슐’ 팝업스토어에 입장하기 위해 방문객들이 줄을 서고 있는 모습.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은 23.8% 각각 매출이 증가했다.

대형마트 역시 연휴 특수를 봤다. 이마트의 경우 즉석요리식품 매출이 25% 증가했으며, 한우와 수입산 고기 매출 역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각 75%, 30%로 상승했다. 롯데마트는 과일을 중심으로 연휴 수요가 있었다. 과일 상품 매

출이 같은 기간 30% 이상 올랐다. 전체 매출은 5%가량 올랐다.

경기 침체 상황에서 좀처럼 매출 반등 기회를 잡지 못하던 오프라인 유통가가 모처럼 황금연휴 기간 특수를 본 셈이다.

실제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3월 온라인 플랫폼 매출은 전년 동기 대

비 19.0% 증가한 반면, 오프라인 매출은 0.2% 감소했다. 이 가운데 백화점 매출은 2.1% 줄어 가장 큰 폭의 감소세를 기록했다. 대형마트도 0.2% 감소했다.

이번 황금연휴 특수배경으로 백화점은 팝업스토어 등 테마형 행사로 오프라인 방문객을 끌어모았고, 대형마트는 집에서 연휴를 보낸 고객들의 식재료

수요 증가에 힘입어 식품 중심 매출이 늘었다는 분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연휴 기간 전반적으로 유통가가 특수를 봤다”면서 “외출한 사람들은 팝업스토어 등 행사가 마련된 백화점 등을 찾아 소비를 하고, 집에 있는 사람은 집에 있는 대로 집밥을 해 먹기 위해 마트에서 식품 위주 소비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편, 황금연휴 기간 국내외 관광지 여행객이 몰리면서 여행업계도 특수를 누렸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30일부터 5월 4일 사이 출발한 하나투어·모두투어·노랑풍선 등 주요 여행사의 패키지여행 예약자 수는 전년 대비 30~40% 증가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4월 30일부터 5월 6일까지 인천공항 이용객은 총 147만3000여 명으로, 하루 평균 21만384명에 달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0.1% 증가한 수치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metroseoul.co.kr

‘핫식스 더킹’에 사과 과즙 상큼·달콤한 에너지 음료

롯데칠성음료 ‘핫식스 더킹 애플홀릭’ 파워·포스·러쉬·제로 등 총 7종 판매



롯데칠성음료가 에너지 음료 ‘핫식스 더킹’에 사과 과즙을 더한 ‘핫식스 더킹 애플홀릭(사진)’을 출시한다고 8일 밝혔다.

롯데칠성음료는 에너지 음료를 마실 때 집중력 강화뿐만 아니라 맛을 중요시하는 소비자가 증가함에 따라 폭넓은 선택권을 제공하기 위해 사과 과즙을 첨가한 핫식스 더킹 애플홀릭을 선보인다.

핫식스 더킹 애플홀릭은 사과 농축액을 담아 사과 본연의 상큼하고 달콤한 맛과 향이 특징이며, 카페인 100mg과 타우린 1000mg을 함유했다. 패키지는 사과의 상큼함을 담은 연두색 배경에 사과 그림과 핫식스를 상징하는 불사조를 표현했으며 용량은 355mL다.

핫식스 더킹 애플홀릭은 전국 편의점, 대형마트, 롯데칠성음료 공식 직영

몰 ‘칠성몰’을 포함한 온라인 쇼핑몰 등 다양한 판매처에서 구매할 수 있다.

롯데칠성음료 관계자는 “짜릿한 탄산감의 핫식스 더킹에 달콤한 사과 과즙까지 더해진 과일 맛을 즐길 수 있는 핫식스 더킹 애플홀릭을 출시하게 됐다”라며 “핫식스 애플홀릭을 포함한 핫식스를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해 신제품 시음 행사, 대학생 서포터즈 활동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핫식스 더킹은 대한민국 대표 에너지 음료 브랜드로 오리지널 맛 ‘파워’, 저칼로리 ‘포스’, ‘러쉬’, 제로 칼로리 ‘제로’, 과즙을 담은 ‘크러시퍼치’, ‘퍼플그레이프’, ‘애플홀릭’ 총 7종이 판매되고 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롯데슈퍼, 조각과일·단추형 건전지 매출 ↑

1분기 전년대비 각각 20% 증가

롯데슈퍼가 올해 1분기 기준 조각 과일과 단추형 건전지 매출이 각각 전년 동기 대비 20% 증가했다고 8일 밝혔다. 간편하게 섭취하거나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상품군의 매출이 전반적으로 증가했다는 설명이다.

롯데슈퍼에 따르면, 지난해 조각 과일 매출은 전년 대비 약 50% 증가했으며, 올해 1분기 역시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신장했다.

특히, 조각 과일의 주요 상품인 수박이 판매되는 5~8월 동안 조각 과일 매출이 집중됐다. 실제로 지난해 5~8월 월평균 조각 과일 매출은 같은 해 전체

월평균 대비 2배 이상 높았다.

올해 1분기 단추형 건전지 매출도 전년 동기 대비 약 20% 증가했다. 지난해 전체 기준으로는 전년 대비 약 3배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1인 가구 비중 확대와 이들이 중시하는 간편함이 이 같은 매출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는 게 롯데슈퍼 측 설명이다.

롯데마트·슈퍼 이규원 과일팀 상품기획자(MD)는 “간편함을 갖춘 상품 혹은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생필품이 슈퍼 채널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며 “앞으로도 롯데슈퍼를 찾아주시는 고객들이 먹거리와 생필품을 편리하게 구매하실 수 있도록 차별화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재선 기자

현대백화점 11일까지 ‘펫페어’ 개최

현대백화점이 이달 9일부터 11일까지 서울 성동구 성수동 ‘이규엘 그로브’ 2층에서 ‘더현대 펫페어’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더현대 펫페어는 현대백화점이 외부 공간에서 여는 첫 반려동물 관련 행사로, 반려동물 관련한 최신 트렌드 상품과 온라인상에서 주목받는 펫 브랜드를 한자리에서 소개한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총 26개 브랜드가 참여해 반려동물용 패션 상품, 수제 간식, 유모차, 가구, 소품 등 다양한 제품을 선보인다. 대표 상품으로는 펫 브랜드 ‘디자인포도그’의 ‘덤섬백’, 속옷 브랜드 ‘BYC’가 반려견을 위해 출시한 ‘개리야스’ 등이 있다.

현대백화점은 이번 펫페어를 통해 고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는 한편, 협력사와 함께 상생을 도모하고 브랜드 성장에도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안재선 기자

롯데, 파리서 ‘대한민국 브랜드 엑스포’

코트라 등과 협력 12일~13일 개최
국내 우수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

롯데가 이달 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간 프랑스 파리에서 ‘롯데-대한민국 브랜드 엑스포’(이하 브랜드 엑스포)를 연다.

브랜드 엑스포는 롯데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함께 마련한 프로그램으로, 국내 우수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 현지에서 제품 전시회와 수출·수입 상담회를 연계해 운영한다.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이번 브랜드 엑스포에는 유럽 진출을 추진하는 국내 중소기업 50개사가 참여한다. 참여 기업들은 뷰티, 식품, 패션, 라이프스타일 등 다양한 분야의 제품을 시연하고 전시한다.

먼저, 브랜드 엑스포 수출상담회에 프랑스를 비롯해 독일, 스페인 등 유럽



‘프랑스 파리 종합 전시회’에 참가한 국내 기업이 자사 제품을 소개하고 있는 모습. /롯데

13개국 유통업체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수출상담회에서는 사전 수요 조사를 통해 매칭된 국내 기업과 현지 유통업체가 상담을 진행하며, 유럽 시장 진출 전략과 제품 현지화 방안도 함께 논의한다.

아울러, 행사 기간 롯데홈쇼핑, 롯데백화점, 롯데월드 등 롯데 5개 계열사의 바이어들은 프랑스 업체들과 만나 국내 진출을 지원하는 수입상담회에 참여한다. /안재선 기자

하이트진로, 참이슬 후레쉬 ‘제주 에디션’

제주도에서만 만나 볼 수 있는 특별한 참이슬이 출시된다.

하이트진로는 ‘참이슬 후레쉬’ 제주 에디션을 한정 출시한다고 8일 밝혔다. 대한민국 No.1 소주 브랜드로서 지역 특색에 맞는 맞춤형 활동을 전개, 제주를 찾는 관광객들과 지역 주민들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한다는 전략이다. 참이슬의 제주 한정판 제품 출시는 2017년 이후 두 번째다.

참이슬 후레쉬 제주 에디션은 기존 참이슬의 주질은 동일하게 유지하되 돌하르방과 두꺼비 캐릭터를 접목, 한라봉과 이슬방울 캐릭터를 조합해 라



벨 디자인에 변화를 줬다. 제주도를 대표하는 상징물과 특산물을 귀엽게 담아내 기존 라벨과 차별화했다. 이번 한정판 제품은 5월부터 8월까지 약 4개월간 제주 지역 내 식당, 술집 등 유통채널에서만 판매된다. 또한, 이를 기념해 돌하르방으로 변신한 두꺼비 피규어 ‘돌하르방깍’도 제작돼 제주 상권에서 만나볼 수 있다. /신원선 기자

美 의약품 관세 초읽기… K기업, 현지 제조·생산 등 대응

트럼프, 의약품 관련 관세 시사
품질인증 등 규제 변화 가능성도
셀트리온, 현지 생산시설 확보 검토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의약품 관세 부과 결정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국내 기업들도 생존 전략 마련에 분주해졌다. 한국 의약품의 미국 수출 규모가 연간 5.5조원에 달하는 만큼 관세정책의 타격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탓이다. 미국 현지 생산과 공급 체계를 확보하는 것은 물론, 제조 시설과 제품에 대한 품질 인증 등 규제 변화에 대한 긴밀한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8일 업계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5일(현지시간) 의약품에 대한 품목별 관세와 관련해 “향후 2주 이내 큰 발표를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세계 다른 나라와 비교해 우리는 불공정하게 감춰당하고 있다”고 말하며 관세 인상 의지를 드러냈다.



셀트리온 제3공장 전경

세계 최대 의약품 시장인 미국이 관세를 부과할 경우, 의약품의 수출은 물론, 미국 시장 진출에도 타격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2024년 기준으로 한국의 미국 수출 의약품 규모는 약 39억8000만 달러(약 5조5600억 원)로 집계 됐다. 전년 대비 약 52%(1조9000억원) 가량 증가한 역대 최고치다. 특히,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

산(CDMO)의 영향으로 미국으로 수출되는 국내 의약품 가운데 바이오 의약품이 전체 95%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국내 기업들이 미국 현지 생산 전략을 마련하는 것과 동시에, 관련 규제와 운영 부담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행정명령에는 해외 의약품 제조 시설에 대한 검사 수수료 인상, 외국 제약업체의 유효성분 출처 보고, 미(未)준

수 시설 명단 공개 검토 등의 내용이 포함되면서 규제에 대한 부담도 커진 상황이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이날 보고서를 통해 “미국 시장 진출을 계획 중인 국내 기업들은 수출 및 현지 생산 등 다양한 진출 방식에 대한 정보 접근과 검토가 필요하다”며 “규제 완화의 혜택뿐 아니라, 관련 법령 및 운영 부담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내 제조 시설에 대한 품질 관리 부담이 가중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협회는 “해외 제조 시설의 생산 관련 데이터 보고 의무에 대한 집행 강화와 비준수 시설 명단 공개, 해외 제조 시설에 대한 FDA 실사 강화와 그에 따른 수수료 인상 가능성, 결과에 대한 국가 업체별 공개 등이 예고 됐다”며 “미국 시장에 수출 및 진출하는 국내 제조 시설의 품질관리 및 규제 대응을 위한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짚었다.

이어 “미국 정부가 자국 내 생산 제품

을 중심으로 공급을 확대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현지 생산 및 공급 체계 확보와 품질 인증을 갖추는 것이 먼저”라며 “부가적인 행정 및 재정적 부담이 증가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해 미국 시장 진출 시 인증, 허가, 조달 프로세스를 포함한 제도 변화에 대한 정보 확보 등 긴밀한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내 기업들은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셀트리온은 전일 입장문을 통해 미국 관세 타격이 장기화 될 것을 대비해 현지 원료의약품 생산시설 확보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미 예비 검토를 끝냈고 종합적인 내용들을 포괄한 상세 검토를 진행하는 상황이다.

셀트리온은 앞서 2025년 미국에서 판매 예정인 회사 제품에 대해 현재 약 15개월 분의 재고를 이전, 내년 상반기까지의 판매분을 확보했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미국 현지 위탁생산(CMO) 업체를 통한 완제의약품(DP) 생산 계약도 마친 상태다.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종근당, 신규 CI 공개… “글로벌 제약사 도약”

제84회 창립기념식

이장한 회장, 새로운 미래 비전 공유
“예방부터 치료까지 제약기술 혁신”

종근당이 반세기 만에 기업 CI를 바꾸며 ‘국산 제약 기술’ 혁신을 통한 미래 비전을 제시한다.

8일 국내 제약·업계에 따르면, 종근당은 지난 7일 서울 충정로에 위치한 본사에서 ‘제84회 창립기념식’을 열고 새로운 미래 비전과 신규 CI 등을 공개했다. 특히 신규 CI에는 글로벌 무대로 뻗어 나가겠다는 기업 가치관이 담겼다.

심볼은 기존 형태는 유지하되 종과 슬로건의 크기를 키웠다. 종을 감싸고 있는 원형 지름을 넓혀 원형 태두리 안에 쓰인 슬로건까지 확대 적용했다. 인



이장한 종근당 회장이 지난 7일 열린 창립기념식에서 신규 CI를 소개하고 있다. /종근당

류 건강을 위한 기업의 사명을 강조한 것이다.

서체는 종근당이 자체 개발한 ‘종근당 미래체’로, 이는 돈옴체와 굴림체를 조합해 부드럽으면서 힘이 있는 글자체를 구현한 것이다. 서체를 탄력 있게 우상향하는 획으로 디자인해 진취적인느

낌을 표현했다.

종의 초성인 ‘ㅈ’자는 임직원이 하나가 되어 미래를 위해 힘차게 도약하는 모습을 형상화했다. 기존 서체를 둘러싸고 있던 사각 상자를 없애 선명성과 가독성을 높였다.

로고 색상은 기존 ‘청색’이 가진 탄생, 생명, 희망 등의 의미를 유지하면서 명도를 한층 높여 기업의 밝은 미래와 환경 친화적인 이미지를 제고했다.

종근당 이장한 회장은 “새로운 CI와 함께 글로벌 제약기업으로 도약하고 종근당의 미래 비전인 ‘K헬스케어를 창조하라’를 실현해 ‘한 사람에서 전 인류까지, 예방부터 치료까지 제약기술 혁신으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기여한다’는 제약 기업의 사명을 이뤄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

동아제약 파티온 ‘트러블 패드’ 출시

동아제약은 더마 화장품 브랜드 파티온에서 ‘노스카나인 트러블 패드’를 출시했다고 8일 밝혔다.

노스카나인 트러블 패드는 피지와 각질 관리에 효과적인 살리실산(0.5%)과 트러블 특허 성분 아크제로, 피부 진정 핵심 성분 판테놀, 알란토인, 썬인주출물을 함유하고 있다.

국내 최초로 여드름성 피부 완화 가능성을 인정받아 아크네균을 99.99% 제거해 준다.

스킨케어 첫 단계에서 패드로 얼굴 전체를 피부 결에 따라 부드럽게 닦아준 뒤, 미온수로 여드름 부위를 깨끗하게 씻어내면 된다.

노스카나인 트러블 패드는 반으로 잘라 사용이 가능한 2분할 패드로 설계된 것도 특징이다.

/이청하 기자

HK이노엔, ‘IN-B00009’ 국내 3상 승인

(비만치료제)

중 등 글로벌 3상서 유효성 확인

HK이노엔이 개발 중인 비만 치료제가 임상 3상에 진입한다.

HK이노엔은 지난 7일자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1(GLP-1) 수용체 작용제 계열 비만 치료제로 개발 중인 ‘IN-B00009’의 국내 임상 3상 시험계획(IND) 승인을 받았다고 8일 밝혔다.

이번 3상 임상시험은 당뇨병을 동반하지 않은 성인 비만 또는 과체중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IN-B00009 또는 위약을 주 1회 피하주사로 투여해 유효성과 안전성을 평가한다. 본 시험은 다기관, 무작위배정, 이중 눈가림, 위약 대조, 평행군 방식으로 설계됐으며, 2028년 5월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HK이노엔은 이번 시험에서 기저치 대비 40주 시점의 체중 변화율과 체중 감소율 5% 이상인 시험대상자 비율을 1차 평가지표로 설정했다.

앞서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비만 환자 대상으로 진행된 임상 2상에서 26주 투여 시 안전성 및 리라글루티드(Liraglutide) 대비 통계적으로 유의한 체중 감소 효과를 입증했다.

또한 중국에서 진행된 현지 비만 환자 대상 임상 3상에서도 위약 대비 우수한 체중 감소 효과를 확인했다.

HK이노엔 관계자는 “IN-B00009가 전 세계적 질병인 비만 치료에 기여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hy, ‘선셋가든 와인&피크닉’ 참가

‘텔리아니 밸리’ 브랜드 소개

hy가 오는 10일부터 11일까지 현대프리미엄아울렛 SPACE1에서 열리는 주류 행사 ‘선셋가든 와인&피크닉’에 참가한다. 이번 행사에서 hy는 2023년부터 단독 수입하고 있는 조지아 와인 브랜드 ‘텔리아니 밸리(Teliani Valley)’를 소개한다.

텔리아니 밸리는 조지아를 대표하는 와인 제조사다. 일반적인 와인 제조 방법과 차별화되는 ‘크베브리’ 양조 방식을 사용해 와인을 만든다. 향아리에 포도 과육과 껍질, 줄기, 씨앗 등을 함께 담아 흙으로 밀봉한 후 땅속에 묻어 숙성시키는 방식으로 이렇게 생산한 와인은 풍부한 향과 특유의 질감을 갖는다. 8000년 전통의 조지아 크베브리 제조 방식은 2013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될 만큼 특별하다.

hy는 행사 기간 중 총 10종의 텔리아니 밸리 와인을 선보인다. 대표 제품은 ‘글레쿠리 키시’다. 조지아 토착 포도품종인 ‘키시’로 만든 화이트 와인이다.



hy가 현대프리미엄아울렛 SPACE1에서 열리는 ‘선셋가든 와인&피크닉’에 참여한다. /hy

호박색을 띠며 상큼한 오렌지와 고소한 견과류의 내음이 매력적이다. 매운 음식이나 연어, 치즈 등과 잘 어울린다.

방문객은 텔리아니 밸리 와인을 최대 23% 할인된 가격에 만나볼 수 있으며 현장 시음도 가능하다. 와인 1병을 구매하면 ‘잇츠온 세븐틴 스낵팩’도 함께 증정한다.

방문이 어려운 소비자들을 위해 온라인 행사도 함께 진행한다. 주류 전문 플랫폼 ‘데일리샷’에서 동일한 할인가로 구매 가능하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아모레퍼시픽, ‘한울’ 美 공식 진출

세포라 입점… ‘유자’ 제품군 등 출시

아모레퍼시픽은 오는 16일부터 미국 전역의 세포라에서 자사 화장품 브랜드 ‘한울’을 선보인다고 8일 밝혔다.

한울은 세포라를 통해 미국 현지 시장을 본격 공략한다는 방침이다. 브랜드 대표 제품인 ‘유자’ 제품군의 수면팩, 토너 패드 등을 출시하고 한국 전통 원료의 효능을 알릴 계획이다.

특히 한울은 국내 지역 농가와 협업체 원재료를 공급하고 유자, 썬, 쌀, 밤 등과 같은 원료를 활용한 독자적인 기

술력을 개발해 왔다. 피부에 가장 효과적인 형태로 효능을 전하는 것은 물론 편안한 제형, 자연의 향, 한국적 미학을 담은 디자인 등이 특징이다.

아모레퍼시픽 관계자는 “한울이 쌓아온 원료 기술과 한국 고유의 아름다움을 살린 브랜드 가치를 세계 시장에 알릴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며 “합리적인 가격대에 확실한 효능을 기대하는 글로벌 고객에게 한국적인 원료와 미용법으로 차별화된 뷰티 솔루션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여자의 건강은
두 번 만들어진다
장에서 한 번, 질에서 한 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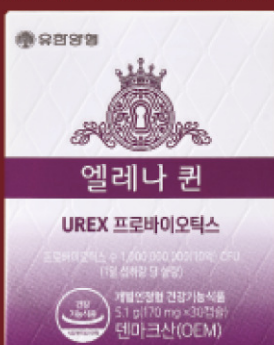


5월 가정의 달 엘레나 Day

소중한 사람에게 건강을 선물하세요

엘레나는 국내 최초로 식약처 질 건강 기능성을 인정받아
여성의 질과 장을 더블 케어합니다
5월엔 엘레나와 함께 마음을 더블로 전하세요

[국내 최초 개별인정형 원료 UREX® PROBIOTICS]



[성장기 여성 청소년]



[임신부 및 수유중인 여성]



[갱년기 여성]



프리미엄 질유산균 MY FIRST
ELENA

지엄한마음재단, 인천 고등학생 AI·SW 인재로 육성

STEM 교육 프로그램 운영
대학생·한국GM 멘토링 제공
글로벌 문제 해결모델 따라 실습

지엄한마음재단코리아(이하 지엄한마음재단)가 인천 지역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인공지능(AI)과 소프트웨어(SW)를 중심으로 한 STEM(과학, 기술, 공학, 수학)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8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제너럴모터스(GM) 글로벌 STEM 프로그램의 일환이다. 청소년의 문제 해결 역량을 키우고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할 인재를 육성하는 것이 목표다.

이번 프로젝트에는 인천 지역 15개



한국뉴욕주립대학교에서 진행된 '2025 글로벌 문제해결 STEM 교육 프로그램' 발대식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는 윤명옥 지엄한마음재단코리아 사무총장.

고등학교 동아리, 약 70명의 학생이 참여한다. 대학생 멘토와 한국GM이 밀

착형 멘토링을 제공할 예정이다. 프로젝트 기간 동안 학생들은 지역

사회 문제를 발굴해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글로벌 문제 해결 모델'에 따라 실습할 예정이다. 오는 12월까지 성과 발표 및 시연이 예정돼 있으며, 우수팀은 한국GM 및 인천테크노파크 견학과 함께 국제기구에서 프로젝트 성과를 발표할 기회도 얻게 된다.

윤명옥 사무총장은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학생들이 AI와 소프트웨어 등 디지털 기술을 직접 경험하고 다양한 문제를 스스로 파악해 해결하는 역량을 쌓을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다"며 "참여하는 모든 이들이 함께 협력해 지역 사회는 물론 글로벌 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NHN 플레이숲' 조성 캠페인 실시

NHN이 꿀벌 생태계 복원과 기후위기 대응에 지속적으로 나서고 있다. NHN은 8일 임직원 이 함께하는 친환경 캠페인 'NHN 플레이숲'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NHN 플레이숲'은 NHN이 환경재단과 함께 서울 마포구 노을공원에 조성한 밀원수림이다. /NHN



위메이드-아드라코리아, 소방청 기부

위메이드는 8일 아드라코리아와 함께 총 3000만원의 기부금을 소방청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기부금은 최근 영남 지역 산불 진화에 참여한 소방관들의 의료비 지원에 전액 사용될 예정이다. /위메이드



황병우 iM금융 회장, 임직원 소통 행사

iM금융그룹은 황병우 iM금융그룹 회장이 임직원들과의 소통 증진을 위해 iM뱅크 제2본점에서 'COFFEE with CEO' 타운홀 미팅을 진행했다고 8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황병우 iM금융그룹 회장과 iM금융지주 임직원 60여명이 일일 바리스타 체험을 진행했다. /iM금융그룹



동원F&B, '건강한 식문화 조성' 협약

동원F&B는 전날 서울대학교 식품영양학과와 건강한 식문화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양측은 한식 가정간편식(HMR) 특성에 맞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연구와 지식 교류를 통해 재료 구성, 제조 공법 등을 고도화하며 '양반' 브랜드의 제품 경쟁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동원F&B



도미노피자 '전국 리틀야구대회' 개최

도미노피자가 주최하는 전국 리틀야구대회가 20주년을 맞이했다. 배달 피자 브랜드 도미노피자는 우수한 기량의 야구 선수를 다수 배출하며 야구 스타 등용문으로 거듭난 '제2회 도미노피자기 전국 리틀야구대회'가 지난 2일 개막해 진행중이다. /도미노피자

캐딜락 '에스컬레이드' 우수성 인정받아 SM그룹 대한해운, 신촌서 플로깅 진행

자동차기자협회, 5월의 차 선정
디자인·기술 완성도 업그레이드
VIP 위한 새로운 럭셔리 경험 선사

아메리카 럭셔리 브랜드 캐딜락의 대형 SUV '더 뉴 에스컬레이드' (사진)가 국내 시장에서 뛰어난 주행성능과 디자인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한국자동차기자협회(KAJA)는 2025년 5월의 차에 캐딜락 더 뉴 에스컬레이드를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 KAJA 산하 올해의 차 선정위원회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출시된 신차 및 부분변경 모델을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해 이달의 차를 발표한다. 평가 항목은 ▲내/외부 디자인 및 감성 품질 ▲안전성 및 편의 사양 ▲동력 성능 ▲에너지 효율성 및 온실가스 배출 ▲상품성 및 구매 의향도 등 다섯 가지 부문으로 구성된다.

지난달 선보인 신차 중 BMW 뉴 i4, 지프 뉴 글래디에이터, 캐딜락 더 뉴 에스컬레이드(브랜드 가나다 순)가 5월의 차 후보에 올랐으며, 치열한 경쟁 끝에 캐딜락 더 뉴 에스컬레이드가 50점 만점 중 35점을 획득해 5월의 차에 최종 선정됐다.

더 뉴 에스컬레이드는 내/외부 디자인 및 감성 품질, 동력성능부문에 10점 만점 중 7.7점을 받았으며, 안전성 및 편의 사양 부문



캐딜락 '더 뉴 에스컬레이드' 실내 인테리어.

에서 7.3점을 기록했다.

정치연 올해의 차 선정위원장은 "캐딜락 더 뉴 에스컬레이드는 1998년 1세대 출시 이후 진화를 거듭해온 럭셔리 풀사이즈 SUV"이라며 "디자인과 기술적 완성도를 더 세심하게 업그레이드했고, 외관부터 실내까지 압도적인 변화를 담아냈다"고 말했다. 이어 "VIP를 위한 2열 이그제큐티브 시트 패키지와 파워 오픈 클로즈 도어는 새로운 차원의 럭셔리 경험을 선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KAJA는 국내 주요 일간 신문, 방송, 통신사, 온라인, 자동차 전문지 등 59개 매체를 회원사로 두고 있으며, 회원사 소속 기자 200여 명이 활동하고 있다. 한국자동차기자협회는 자동차 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언론의 창달, 올바른 자동차 문화 정착 유도, 자동차 기자들의 자질 향상과 회원 상호 교류 증진을 목적으로 지난 2010년에 설립됐다. /양성운 기자

ESG 경영·지역사회 활성화 기여

SM그룹의 해운부문 계열사 대한해운은 지난달 말 서울 서대문구 신촌사옥 인근에서 '플로깅 DAY'를 진행했다고 8일 밝혔다.

'줍다'는 의미의 스웨덴어 '플로카우프'와 영어 '조깅'의 합성어인 플로깅은 여러 사람이 함께 걷거나 뛰며 주변의 쓰레기를 수거하는 공익적 활동을 말한다.

대한해운은 SM그룹 우오현 회장이 그룹 차원의 정책사업으로 강조하고 있는 ESG 경영 실천에 힘을 보태고, 지역사회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이번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오는 17일부터 '현대 N 페스티벌' 진행

영암·용인서 6라운드 개최

현대자동차가 오는 17일부터 18일까지 용인 에버랜드 스피드웨이에서 열리는 1라운드 경기를 시작으로 '현대 N 페스티벌' 2025 시즌을 개막한다고 8일 밝혔다.

현대 N 페스티벌은 2003년부터 2010년까지 개최된 '현대 클릭 스피드 페스티벌', 2011년부터 2018년까지 개최된 '코리아 스피드 페스티벌'을 계승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원메이크 레이스 대

대한해운 임직원 20여명은 2시간여 동안 신촌사옥과 신촌역, 이대역 주변을 돌며 담배꽂초 등 생활쓰레기를 수거했다. 대한해운은 플로깅 DAY를 연중 캠페인으로 운영해 정기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한수한 대한해운 대표이사는 "이번 플로깅 DAY 행사가 많은 임직원들에게 사옥 인근의 지역사회를 살피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됐길 희망한다"며 "앞으로도 사옥이 위치한 신촌과 이대 지역이 더욱 깨끗하고 안전한 관광지로 인기를 끌 수 있도록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다양한 사회 공헌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오는 17일부터 '현대 N 페스티벌' 진행

원메이크 레이스는 단일 차종끼리 트랙을 달려 드라이버의 실력만으로 승부를 겨루는 경주 방식을 말한다.

이들 경주 차량은 N 양산 모델을 기반으로 제작돼 N 차량의 우수한 성능을 입증할 예정이다.

1라운드를 시작으로 오는 6월 영암 코리아 인터내셔널 서킷, 9월과 10월 인제 스피드돔에서 차례로 2~4라운드 가 열리고 11월 용인 스피드웨이에서 5라운드와 최종 6라운드가 개최된다. /양성운 기자

카카오T, '도로 위 히어로즈' SNS 캠페인

인스타툰 작가 '키크니'와 진행

카카오모빌리티상생재단은 사회 공헌 활동 '도로 위 히어로즈'의 사연 공모 활성화를 위한 SNS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재단은 택시, 버스, 대리운전, 배송 및 배달 등 다양한 모빌리티 산업 종사자 중에서 선행을 실천한 '의인(義人)'을 찾아 시상할 예정이다.

이달 말까지 재단은 우리 주변의 도

로 위 히어로즈 주인공을 찾기 위해 인스타툰 작가 '키크니'와 손잡고 SNS 캠페인을 실시한다.

직접 경험했거나 목격한 선행 주인공의 사연을 보내면 심사를 거쳐 키크니 작가의 인스타툰으로 제작해 내달 말 공개한다.

캠페인 참가 희망자는 카카오T와 키크니 작가 인스타그램에 게시된 링크를 통해 5월 31일까지 사연을 접수하면 된다. /김현정 기자 hjk1@

오늘의 날씨

5월 9일 (금)
음력 : 4월 12일

수도권 날씨
15~16℃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해돋이 / 05:28 | 해질 / 19:29

연천 11/16
동두천 13/16
가평 12/14
파주 11/15
서울 15/16
양평 13/16
인천 14/16
수원 14/16
용인 14/16
평택 13/17

백령도 11/14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www.dseshop.co.kr



“샴푸 3분만에 염색 끝”

힘든 염색은 이제 그만, 감기만 하면 염색 끝 - 세븐에이트 블랙샴푸



하루 3분, 간편하게 감기만 하세요~



샴푸하듯 간편하게, 초스피드 3분 염색
세븐에이트 블랙샴푸

- 3분 염색으로 빠르게** 30분 걸리는 길고 지루한 염색시간, 단 3분이면 OK 눈시림, 두피자극, 냄새 걱정없이 빠르고 편안한 초간단 새치커버
- 유해성분 없는 건강한 새치케어** 두피와 모발 건강을 생각하는 순한 염색, 피부자극 걱정없이 염색후에도 보들보들한 머릿결 유지
- 식물 유래성분으로 건강하게** 검은깨, 흑미, 블랙베리, 블랙커런트 블랙푸드 4종, 백나무잎 특허성분에 9가지 비타 과일 추출물로 생기있는 머릿결



■ 특별 할인판매 • 색상: 내추럴블랙, 다크브라운(선택) • 제품 구성: 26회 사용분 + 전용장갑 2개 • 판매가: ₩19,933원X3(3개월 카드무이자)

상담/구입 문의 **080·854·0082**

미국 상호관세의 본질과 합의



송지승 교수의
경제 읽기

미국은 모든 중국수입품에 대해서 지난 2월 4일과 3월 4일 각각 추가 10%씩 전체 20% 관세 부과를 발효했다. 4월 들어 점입가경(漸入佳境)으로 치닫던 미국과 중국의 관세 부과와 이에 대한 보복 대응이 잠시 한숨을 돌린 듯하다. 개전이 시작된 4월 2일 미국은 모든 수입품에 대해 보편관세 10% 이상을 4월5일부터 부과하고, 75개 국가를 대상으로 관세 및 비관세장벽으로서 중국 34%, 유럽연합(EU) 20%, 일본 24%, 한국 25%, 인도 26%, 대만 32%, 베트남 46% 상호관세 부과도 4월 9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이로써 중국에 대한 미국관세율이 54%로 늘어나게 되자 중국은 4월 4일에 희토류 수출의 즉시 제한과 함께 모든 미국 수입품에 대해 4월 10일부터 발효하는 34% 관세 부과를 발표했다. 이에 미국은 4월 7일에는 9일부터 중국에 대해 104% 관세율을 부과기로 했다. 중국도 물러나지 않고 4월 9일에 상호관세 84% 부과로 대응했다. 그러자 미국은 4월 10일 중국에 대한

상호관세 125%를 부과하기로 하고 미국에 보복관세로 맞대응하지 않은 75개 국가에 대해 상호관세부과를 90일간 유예했다. 그러자 중국은 4월 11일 상호관세를 전날 84%에서 다시 125%로 맞대응했다. 더욱이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후 중국에 대해 부과했던 펜타닐 마약 원료에 대한 보복관세 20%를 고려하면 미국의 대(對)중국 관세율은 145%에 이르는 수준이다.

이처럼 4월 2일부터 4월 11일 기간 미·중 관세 폭탄이 오고 가면서 우리 시장은 물론이고 세계 자본시장은 극심한 변동성을 겪었다.

미국이 중국을 포함한 여타 국가들에 부과하려는 상호관세의 본질은 무엇이고 이것이 우리 경제에 주는 함의를 찾아보자.

첫째는 미국의 만성적 무역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한국은행과 코트라 자료에 따르면 2022년 미국 무역수지 적자는 1조1797억 달러이고, 이 중 대중 무역적자가 35.8%로 제일 크고, 다음으로 멕시코 11.45%, 베트남 10.55%, 캐나다 7.9%, 독일 6.6% 순이다. 관세 조치가 단기적으로 미국의 무역수지 개선에 효과가 있었지만 수입의존형 경제에서 상호관세로 인한 수입물가 상승으로 인해 경제성장이 위축되는 부작용도 생길 수 있어, 미국경제 전체

적으로 관세효과가 제한된다.

둘째는 현행 21%로 되어 있는 법인세와 39.6%의 개인소득세율에 대한 추가 인하 등의 감세이행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삼성증권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연방정부 세수 중에서 개인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49%이고 관세는 1.8%로서 매우 낮다. 이런 세수 구조에서 관세인상의 실효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는 달러 기축통화체계에서 위협받는 국제통화체계 재편을 위한 트럼프 행정부의 협상 수단이란 것이다. 주변국의 과도한 달러 수요에 의해 달러가 고평가되면서 미국의 무역적자가 누적되고 있다. 초기엔 관세를 압박용으로 사용하고 관세 부과에 반발하는 나라들에 대해 미국이 제공하는 안보보장에 대한 대가로서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통화질서에 협력하도록 관세를 축소하거나 철폐하려는 것이다.

4월 25일 한·미 협상에서는 일본과 달리 방위비가 거론되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가 제시받게 될 최종 청구서에는 안보 대가로서 주한미군 방위비 증액, 관세장벽 회피를 위한 우리 기업의 미국 내 생산, 설비 및 LNG 투자, 원화 절상 등의 종합 패키지가 포함되지 않을까? /원광대 경영학과 교수

오늘의 운세 5월 9일 (금 4월 12일) http://www.saju4000.com

- **취**
36년생 남남동쪽에서 아름다운 소식이 온다. 48년생 오늘은 일찍 귀가하는 날. 60년생 급할수록 천천히. 72년생 조상님 제사에는 예의를 갖추자. 84년생 정신분석학에서 화병 율화병은 고유한 집단 감정 병으로 통용된다는데.
- **소**
37년생 일의 선택이 뒤바뀌니 확인하는 습관을. 49년생 연인을 만나게 되니 하루가 즐겁다. 61년생 말을 줄이고 행동으로 실천하도록. 73년생 소원이 이루어지니 고마워하라. 85년생 매매문서가 해약될 일진이니 가슴이 답답하다.
- **호랑이**
38년생 유지하지만 크게 인기를 얻지는 못한다. 50년생 풀과 나무에 꽃이 만발. 62년생 데이트 약속이 어긋날 수 있으니 먼저 시간약속 지켜가라. 74년생 종일하루가 상쾌 날이다. 86년생 작은 문서도 세밀히 검토해서 결재해야.
- **토끼**
39년생 기도는 마음에 지혜를 준다. 이루어질 만한 복덕이 있다. 51년생 분수에 넘치는 일은 생각 말 것. 63년생 방향 말고 선배와 대화하라. 75년생 길에서 손재수가 있으니 차량 시비 주의. 87년생 불로소득이 많아지니 겸손해야.
- **양**
40년생 부도 수가 있다면 실내의 욕실이나 화장실을 청결히. 52년생 불면증이면 두침을 바꿔보라. 64년생 먼집에 검은색계통을 입으면 도움이 될 것. 76년생 새로운 운기가 시작된다. 88년생 행운이 따르니 자금도 마련된다.
- **뱀**
41년생 돈뿐 아니라 어느 것이든 계속되는 세습은 없다. 53년생 사양해보라 오후에 득이 온다. 65년생 측은지심을 배려라. 77년생 세월은 시간과 함께 달려간다지만 다시 계획을 잡자. 89년생 친구가 괴로워하니 나도 슬프다.
- **말**
42년생 모든 일에 과욕은 금물. 54년생 낙마 수가 있으니 계단과 높은 구두는 주의해야. 66년생 친구 말 듣고 사두었던 주식이나 하락하니 근심. 78년생 편안할 때 앞날을 대비하도록. 90년생 돌아오는 관음재일 가족 기도를 올려보라.
- **양**
43년생 이상에 대한 의욕도 억제해보길. 55년생 오전 중에 기다리던 입찰 소식이 오후에 성과 온다. 67년생 민선 사람과 구설수 발생. 79년생 남의 자식도 사랑해 보도록. 91년생 오늘은 다소 역량이 떨어지나 내일은 희망이 찾아온다.
- **원숭이**
44년생 공을 얻는 운세. 56년생 다른 상대를 바라보다 두 마리 토끼 다 놓친다. 68년생 말할 때 군더더기를 빼면 능률이 오름. 80년생 즐거웠던 찾다가 괴로운 곳으로 떨어진다. 92년생 타인의 말도 귀담아들어야 꼬이는 일도 풀린다.
- **닭**
45년생 쌓은 공덕을 인정받는다. 57년생 모든 행동에는 책임도 반드시 따르니 신중하여 보이자. 69년생 친구 사이 우정은 소중한 것. 81년생 성공이었으나 누군가는 나를 돕지 않았겠는가. 93년생 중심을 잡으면 피상법도 물러치게 된다.
- **개**
46년생 감성적인 생각을 하다가 편한 듣는다. 58년생 정의감은 신용에 의해 실현되니 나서지 마라. 70년생 이직은 불편한 결과를 초래. 82년생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 했다. 94년생 비위가 약하다면 창업을 좀 더 생각을 해야만 한다.
- **돼지**
47년생 남의 일에 관여하여 이로문 것 없다. 59년생 애타게 기다렸던 소식이 온다. 71년생 일진이란 좋은 날을 가리는 것이니 참고하자. 83년생 경불경락(庚不經絡)이란 말이 있듯 건강 유의. 95년생 싸움을 일삼으면 결국 시간이 지나 후회.



김상회의四季 내가 만드는 운명 ②

운명은 타고나는 것일까 아니면 개척하는 것일까. 사람은 태어날 때 빈손으로 온다고 한다. 맞는 말이다. 그러나 불교적 세계관과 인생관으로 보자면 그 빈손 안에 손금이 있지 않은가? 운명의 기본 길이라고 여겨지는 손금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다. 이는 비유적인 표현으로써 석가모니의 해안을 빌려보자면, “업만이 자기 재산”이라고 설파한 그 의미가 이해된다. 각자 모두는 업의 상속자인 것이다. 윤회를 인정하는 불가에서는 선업의 결과로 이생에 좋은 운명의 길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의미다.

그 반대인 악업의 결과는 험난한 질곡의 운명인 것은 말할 것이 없다. 그렇다고 해서 불교는 절대로 운명론이 아니다. 과거에도 매이지 말고 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지도 말며 다만 현재에 집중하라는 것이다. 현재에 내가 깨어 있으면 과거는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미래는 현재의 결과이므로 내가 지금, 이 순간 바르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한다면 미래는 당연히 좋은 업의 결과가 펼쳐질 것이니 공연히 걱정할 일이 없다. 그러니 운명은 개척되어 진다고 보는 것도 가한 얘기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선조들은 아기들이 태어날 때 좋은 날에 태어나기를 바라며 그 이전의 입태도 매우 중시 여겼기에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 사극 드라마를 보다 보면 관상감 관리가 왕과 왕비의 합궁 태일을 잘 따져서 진언하는 장면도 보인다. 명문 양반가나 왕실에서는 왕과 왕비의 합방은 물론 정실부인의 합방도 두 사람의 운기를 살펴 좋은 날을 택일하였고, 천기적으로도 천동 벼락이 치거나 보름날이나 그믐날 같은 경우는 저러했다. 일식이나 월식이 있는 날도 꺼렸는데, 당시 사람들은 순조롭지 않은 자연 현상이 있을 때의 건강상, 정신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집단인식이 있었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윤휘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666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771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자사주로 밸류업 외치지만… 저평가 늪 빠진 기업들



기지수첩
원관희
(자본시장부)

정부의 밸류업 가이드라인이 제시된 지난해 5월부터 올해 1분기까지 상장사들의 자사주 취득 금액은 20조원을 넘어서는 등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지만, 정작 시장에서 기업들은 저평가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상장사 812개사 중 565개사 즉 전체의 69.58%가 여전히 PBR(주가순자산비율) 1배를 밑돌고 있다. 1년 전(66.29%)보다 오히려 저평가기업이 더 증가했다.

기업들은 자사주 매입과 배당 확대를 통해 주주환원에 나섰다. 자사주 소각은 유통 주식 수를 줄여 주당 가치를 높이는

즉각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배당 확대 역시 주주환원 정책의 일환이다. 겉보기엔 주주 친화적인 행보처럼 보였지만 주가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기업들이 단기적 주가 부양을 위해 자사주 매입을 반복하지만, 기업의 본질적 경쟁력이나 경영 투명성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자사주 매입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한 후, 정작 기업이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단기 주가 부양’에 그치고 있다. 기업가치가 근본적으로 개선되지 않는 한, 주가는 쉽게 반등하지 않는다.

지난 3월 국회에서 통과된 상법 개정안은 기업 지배구조 개선의 출발점이 될 수 있었다. 개정안의 핵심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것이었다. 경영진이 주주 가치를 최우선

으로 고려하도록 강제하는 장치였다. 그러나 재계의 강력한 반발 속에 정부는 거부권을 행사하며 법안은 무산됐다.

해외 투자자들의 시선은 여전히 부정적이다. 한국 시장이 ‘불투명한 지배구조’라는 오명을 벗지 않는 한,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구조적 문제로 남을 수밖에 없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사회 독립성, 대주주 견제 장치, 소액주주 보호 시스템 등 지배구조 전반에서 한국 시장의 후진성을 지적하고 있다. 단기적인 자사주 소각이나 배당 확대가 아닌, 경영 투명성과 주주 친화적 경영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저평가는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결국 진정한 밸류업이 실현되려면 주주 가치를 경영의 중심에 놓는 체질 개선이 선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wkh@metroseoul.co.kr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문제풀이: 3X3 스도쿠 X는 가로,세로,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화색 9개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고난도도의 월드파일을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6	8			5	9		7
			2				
				5	6	2	8
		4				7	
7		6	9	2			
					9		
1		9	6			4	7

				1	7	5		6
				6	5			
	2		3					5
	4	7					3	9
8					5			1
					6	9		
3		6	2	7				

9	2	7	2	8	9	6	8	1
2	8	8	6	2	1	9	7	9
1	6	9	8	7	9	2	2	8
8	1	9	7	2	6	9	8	2
6	9	2	1	8	8	7	2	9
8	7	2	9	9	2	8	1	6
9	2	8	2	6	8	1	9	9
7	9	1	8	9	2	2	6	8
2	8	6	9	2	1	6	8	9

6	9	1	7	2	2	9	8	8
8	8	2	6	9	9	7	1	2
7	2	9	1	8	8	9	6	2
8	1	7	9	6	2	2	9	8
8	6	8	9	2	1	2	7	9
9	9	2	8	7	8	6	2	1
2	8	6	2	8	7	1	9	9
1	7	8	8	9	9	2	2	6
9	2	9	2	1	6	8	8	7

진화한 ‘마초맨’ vs 마초걸 ‘틴타피나’… 스페인 카사 로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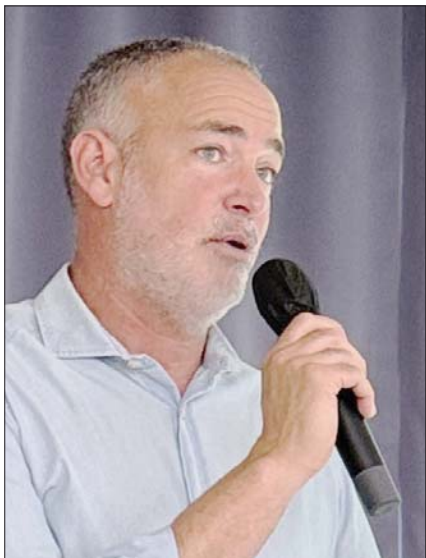


안 상 미 기자의
Why, wine 🍷

‘마초맨’이 진화했다. 마초맨 그란 비노로 말이다. 2014년 첫 선을 보인지 10주년을 맞아서다.

스페인 와인으로는 한국에서 인지도가 높은 와인이 바로 와이너리 카사 로호의 마초맨이다. 모든 것이 한국인들의 취향에 맞았다. 와인의 맛과 품질은 기본으로 와인의 이미지를 마신다고 할 만큼 이해하기 쉬웠다. 한국 음식과 같이 마시기도 좋았고, 개성만점의 라벨은 매년 조금씩 바뀌며 새로움을 찾는 한국 소비자들이 질릴 틈을 주지 않았다.

스페인 카사로호의 헤드 소믈리에이자 세일즈 디렉터인 알레한드로 반 리사우트는 한국을 방문해 “마초맨 그란 비노는 손으로 포도를 수확하고, 양조한 와인 가운데서도 최고의 배럴만 골라 만들었다”며 “지난 10년 간 카사 로호가 배운 것과 느낀 것, 살아낸 여정을 그대로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스페인 카사로호의 헤드 소믈리에이자 세일즈 디렉터인 알레한드로 반 리사우트가 한국을 방문해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금양인터내셔널

와인메이커인 호세 루이스 고메즈와 그의 동반자이자 공동창업자인 라우라 로호는 처음부터 올드 스쿨(Old School)의 관습을 모두 깨고자 했다. 가장 스페인다운 토착 품종을 선택했지만 기존 와인 생산자들과 달리 좀 더 과실미를 살리면서 균형감을 중시했다. 십여년 전만해도 스페인 와이너리들은 대부분 미국 소비자의 입맛에 맞춰 목작하 게 오크 사용을 많이 했다.

사실 음식 역시 본연의 맛을 중시하면서 덜 부담스럽고 조미료를 적게 사용하는 것을 생각하면 와인도 같은 흐름일 뿐이다. 이런 변화를 먼저 알아차렸던 게 주효했다. 2014년 마초맨 첫 출시와 함께 바로 주목을 받았으니 말이다. 병 라벨은 와인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스토리와 개성으로 디자인했다.

이전까지 스페인 와이너리들이 정장을 입은 신사였다면 카사 로호는 노트아에 스니커즈를 신은 신세대다. 지금은 남녀노소 불문하고 모두 스니커즈를 신듯이 카사로호는 스페인 와인의 새로운 기준이 됐다.

카사 로호의 진짜 반전은 테이스팅하면서 시작된다. 섬세한 마초맨과 힘이 있는 마초걸의 모습에서다. 다들 근육질 마초맨과 그와 대비되는 마초걸을 기대했을테니 말이다.

스페인은 예부터 모계 중심 사회였음을 떠올리면 와인의 반전 매력이 이해가 된다. 실세 와이너리에서 호세 루이스는 예술적이고 상상력이 풍부한 감성의 소유자며, 라우라 로호는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결단력을 발휘하는 역할을 한다.

마초맨은 스페인 남동부 무르시아 지역에서 모나스트렐 품종 100%로 만든다. 프랑스에서 무르베드로 불리는 그 품종이다. 보통 블렌딩을 위해 소량만 쓰이지만 모나스트렐이 가장 잘 자랄 수 있는 테루아를 만나면서 조연이 아닌 주연이 됐다. 5월부터 9월까지 비가 거의 내리지 않는 혹독한 기후 조건이지만 이를 견뎌 모나스트렐은 다른 지역에선 볼 수 없는 과실미와 산도, 우아함을 지니게 된다.

라우라 로호가 라벨에 등장해 ‘마초걸’이라는 애칭이 더 친숙한 ‘틴타 피나’는 전혀 다른 지역, 다른 품종이다. 스페인 프리미엄 와인산지인 리베라 델 두에로에서 템프라니요 품종 100%로 만든다. 틸타 피나는 템프라니요의 다른 이름이기도 하다. 진한 과실향에 바디감과 탄닌도 탄탄하게 받쳐준다.

너무나도 개성이 뚜렷한 두 개의 테루아, 다른 품종의 와인이지만 마초맨과 마초걸이 전하는 메시지는 사실 하나다. 그들이 가진 모든 사랑과 열정을 한 병의 와인에 담겠다는 것.

알레한드로는 “우리의 와인은 단순한 음료를 넘어 세대를 거치며 내려온 이 땅과 테루아, 품종, 지식의 정수”라

며 “와인 한 병 한 병마다 사람들이 서로 소통하고 느끼는 이야기가 담겨있다”고 말했다.

마초맨 그란 비노가 마초맨 2세대 버전이라면 3세대도 이미 준비가 되어 있다. 마초맨 블랙라벨이다. 초한정 시리즈로 아직 국내에는 들어오지 않았다.

카사로호가 한국과 인연을 맺은 지도 십여년이 다 되어간다.

그는 “한국의 와인 소비자들은 놀랍도록 모든 면에서 정교함과 탁월함을 추구하고, 카사 로호가 궁극적으로 가고자 하는 방향과 일치한다”며 “한국은 파트너이자 영감의 원천이며, 우리 미래의 중요한 일부분”이라고 강조했다.

/ smahn1@metroseoul.co.kr



마초맨 그란비노(왼쪽), 틸타피나. /금양인터내셔널

문화 단신

쿠광플레이, “썸바디 썸웨어 등 3편, 온 가족 함께 즐겨요”

쿠광플레이는 가정의 달을 맞아 온 가족이 함께 즐길만한 HBO와 맥스 오리지널 시리즈 3편을 8일 추천했다.

HBO 오리지널 시리즈인 ‘썸바디 썸웨어’는 언니를 잃은 후 상실감을 느끼고 있는 캔자스주 출신의 샘이 어느 날 고등학교 동창 조엘을 만나 특별한 모임에 참여하면서 열정과 즐거움을 되찾기 시작하는 내용을 담은 코미디 드라마다. 이 작품은 지난 2023년부터 올해까지 미국작가조합에서 운영하는 WGA 어워드(TV)를 비롯해 크리티크스 초이스 어워드 등에서 6회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1961년 프랑스 요리를 미국에 알려 ‘국민 셰프’로 불렸던 줄리아 차일드를 모티브로 한 HBO 맥스 오리지널 시리즈 ‘줄리아’도 주목할 만하다. 드라마는 자신의 요리책을 홍보하기 위해 우연히 방송에 출연한 줄리아가 인생의 권태기에서 벗어나 삶의 기쁨을 찾는 이야기를 다룬다. 줄리아는 새틀라이트 어워드, BAFTA TV 어워드 등의 시상식에서 에피소드 코미디 부문 최우수 각본상, 여우주연상, 최우수 TV 시리즈를 포함해 다양한 부문에 노미네이트됐다.

마지막 추천작인 ‘디아더 투’는 배우



지망생인 케리와 전직 댄서인 부록의 13살 막내동생 체이스 드림스가 갑작스럽게 스타덤에 올라 혼란에 빠지게 되면서 벌어지는 유쾌한 시트콤이다. 상처를 가진 어른들의 성장을 깊이 있게 다루면서도 할리우드와 SNS 문화를 날카롭게 꼬집어 호평을 받고 있는 작품이다.

이들 드라마 시리즈는 쿠광플레이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가가 지닌 힘의 ‘악마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를 올린다, 내린다’ 하며 손바닥 뒤집듯 말 바꾸기를 하면서 세계를 들었다 놔다 하고 있다. 트럼프가 세계를 상대로 무역 전쟁을 걸자 뉴욕 증권 시장에서 한화로 경 단위의 돈이 빠져나갔다. 이쯤에서 드는 의문 하나. 미국 사람들은 왜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뽑아서 온 세상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걸까. 마블 영화에서 세계 수호자로 활약하며 ‘미국이 곧 정의’임을 사람들에게 각인시켰던 ‘캡틴 아메리카’는 USA에 대한 환상을 갖게 하려고 만든 ‘거짓 세뇌용 가짜 분신’이었다.

유시민 작가가 쓴 ‘국가란 무엇인가’를 보면 이 의문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다. 저자는 “정당하다고 간주되는 폭력을 독점한 유일한 인간공동체로서 국가가 지닌 힘에는 모든 폭력에 잠복한 악마성이 있다”고 밝힌다.

국가권력으로 선을 혹은 악을 행할 수도 있다. 개인과 달리 국가의 악에는 한계가 없다. 개인이 저지르는 악은 국가가 방지하고 응징할 수 있지만, 국가가 저지르는 악은 누구도 쉽게 저지하거나 막지 못한다. 그래서 국가는 실제로 선 못지않게 크고 많은 악을 저질러 왔다.

그렇다면 국가는 왜 악을 저지르는가. 작가는 “도덕이 개인의 내면에서 형성되는 이성적 의식인 데 반해, 국가



국가란 무엇인가

유시민 지음/둘베개

또는 집단을 지배하는 건 집단적 감정과 충동”이라며 “집단에는 양심이 없다”고 설명한다.

책은 “집단이 크면 클수록 공동의 지성과 목적에 도달하기 어려워지며, 불가피하게 순간적인 충동이나 직접적이고 무반성적인 목적과 연계를 맺게 된다”면서 “어떤 하나의 가치를 절대화해 다른 가치를 종속시키는 순간, 국가는 단일 가치가 지배하는 전체주의로 흐르게 된다”고 지적한다.

전체주의는 필연적으로 국가의 정의를 파괴한다. 하나의 가치를 절대적 선으로 상정해 다른 모든 것을 희생시키는 행위는 재앙을 불러온다. 결국 국가를 바로 세우려면, 그 안에 소속된 사람들 사이에 정의가 바로 서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334쪽. 1만5000원.

/김현정 기자 hki1@

메가박스 돌비 시네마서 ‘썬더볼츠*’ 등 3편 상영

메가박스가 시원한 액션이 가득한 5월 개봉작 세 편을 돌비 시네마에서 상영한다. 마블 액션 블록버스터 신작부터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의 신작까지, 박진감 넘치는 액션으로 짜릿함 선사할 라인업으로 구성된 이번 상영작은 돌비의 프리미엄 HDR 영상 기술 ‘돌비 비전’과 차세대 몰입형 음향 기술 ‘돌비 애트모스’가 적용된 돌비 시네마에서 생생한 비주얼과 다이내믹한 사운드로 한 층 더 극대화된 보고 듣는 즐거움을 선사한다.

지난달 30일에는 마블시네마틱유니버스(MCU)의 안티 히어로들이 뭉쳐

예측불가한 별(*)난 팀플레이를 펼치는 ‘썬더볼츠*’가 개봉했다.

세상을 지키던 수호자 ‘어벤저스’가 사라진 뒤, CIA 국장이 새로운 팀을 꾸리려 하면서 벌어지는 사건들을 중심으로, 각기 다른 마블 작품에서 활약했던 캐릭터들이 어두운 과거를 극복하고 나아가는 여정을 담았다.

10일에는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귀멸의 칼날’ 일본 애니메이션 시리즈의 ‘극장판 귀멸의 칼날: 무한열 차편’이 ‘덴고쿠 쿄쥬로’의 생일인 5월 10일을 맞아 돌비 시네마에서는 처음 개봉한다. 어둠 속을 달리는 무한열차



에서 혈귀를 처단하는 비밀조직 귀살대의 최강 검사 염주 덴고쿠와 탄지로 일행이 꿈과 현실을 조종하는 강력한 혈귀와 목숨을 건 결전을 벌이는 이야기를 그렸다.

17일에는 첩보 액션의 진수를 담은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의 8번째 작품 ‘미션 임파서블: 파이널 레코닝’이 개봉한다.



▲연준, 5월 기준금리 동결…파월 “인하 논의할 상황에 있지 않다” /사진 뉴시스

▲트럼프 “중국과 협상 위해 145% 관세 선제 철회 않을 것”

▲美 부통령 “러시아 요구 많아…러-우크라가 직접 대화해야”

▲인도 미사일 공격에 파키스탄은 접경지대 포격 ‘맞불’

▲푸틴, 전승절 앞두고 ‘반서방 연대’ 외교 총력…일시 휴전도 발효

▲트럼프 “영화 관세 100%”에…프랑스 “오히려 美 영화산업 피해”



황금연휴에
매출 수직상승
유통가 '숨통'
L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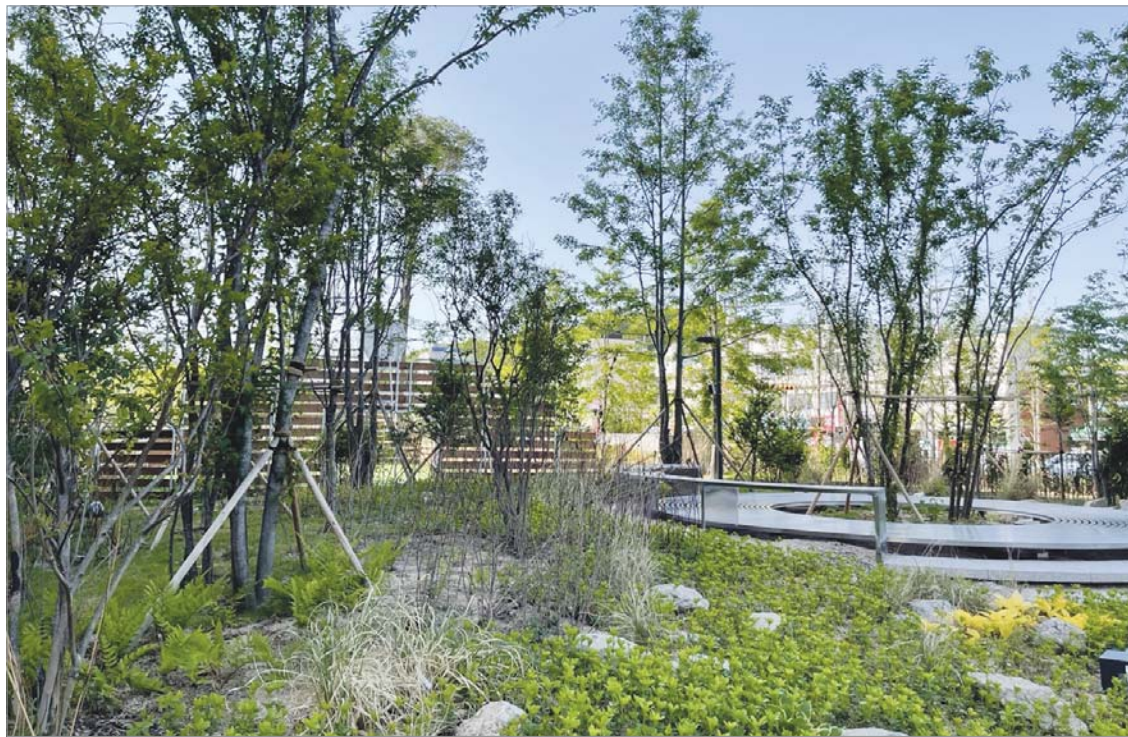
metro®

Life

美 의약품
관세 초읽기
현지 제조 등 대응
L2



수공간과 녹음이 어우러진 계단형 휴식처 '네이처 테라스'



울창한 수목과 야생화로 조성된 '페르마타 가든'

푸른 소나무에 유리온실까지... 단지에서 찾은 '하루의 쉼표'

아파트의 미학(美學)

둔산더샵엘리프

최근 찾은 대전 서구 용문동 '둔산더샵엘리프'. 지난 2월 입주를 시작했다. 대전 지하철 1호선 용문역 8번 출구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에 단지가 위치해 있다.

검은색의 직사각형 대문 위로 '더샵엘리프' 레터링이 깔끔하게 새겨진 단지 정문은 마치 호텔 로비를 연상케 하는 고급스러운 인상을 준다. 넓고 반듯한 게이트형 구조는 입구 자체를 하나의 상징 처럼 만들며 정면에 들어선 조형수와 어우러져 단지의 첫인상을 세련되게 마감했다.

계통로와 도산로가 접해 있어 대전 전역으로 이동이 수월하다. 서대전역(KTX 호남선)과 대전역(KTX 경부선), 대전북합터미널 등도 가까워 우수한 교통환경을 자랑한다.

단지 옆으로 유등천이 흐르고, 중촌 시민공원, 남선공원이 가깝다. 탄방초와 문정중, 탄방중, 삼천중도 인접해 도보로 안심통학이 가능하며 둔산 학원가도 가까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롯데백화점, 갤러리아백화점, 홈플러스, 이마트 등 생활 편의시설이 가깝고 충남대병원, 가톨릭대 대전성모병원이 인접해 있어 의료 서비스도 가깝게 누릴 수 있다. 대전시청, 대전지방방법원, 정부대전청사 등 관공서도 인접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입주민들의 주거 편의성을 위해서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가 주차장 기둥에 추가적으로 설치됐다. 스마트 홈 서비스인 아이큐택(AiQ TECH)으로 조명, 난방, 가스 차단 및 환기 등을 외부에서도 제어할 수 있고 승강기 내부에는 살균 조명을 설치하여 미세한 바이러스 및 세균을 제거한다.

포스코이앤씨와 계룡건설이 시공한 둔산더샵엘리프는 지하 3층~지상 최고 33층, 23개동, 총 2763가구 규모 대단지다. 타입별로 보면 ▲48㎡ 79가구 ▲59㎡A 56가구 ▲59㎡B 41가구 ▲72㎡A 109가구 ▲72㎡B 35가구 ▲84㎡A 998가구 ▲84㎡B 375가구 ▲84㎡C 125가구 ▲84㎡D 117가구로 구성됐다.

단지에는 둔산더샵엘리프만의 조경이 눈에 띄었다. 대단지 규모에 걸맞은 다양한 테마의 정원과 넓은 필드 등의 조경시설을 갖춰 입주민이 쾌적하게 누릴 수 있다.

'스플래시가든' 한가운데에는 자연을 닮은 흰색 캐노피 쉼터가 조형미를 더한다. 기둥 구조물 아래는 곡선형 벤치가 놓여 있어 햇살을 피해 쉬어가기 좋다.

원목 톤 테이블과 의자가 마련돼 입주민들이 담소를 나누거나 여유롭게 머무를 수 있도록 설계됐다. 정원 곳곳을 감싸는 소나무와 초록 식재가 어우러져, 일상 속 자연



(위쪽부터) 블루렛가든, 스플래시가든, 2단지 조형물 '숲의 향연' /전지원 기자

대전 교통요지에 위치한 총 2763가구 대단지 다양한 테마 정원, 넓은 필드 등 조경시설 갖춰

수목·야생화 어우러진 산책로 '페르마타 가든' 곡선 따라 물 흐르는 '네이처 테라스'서 휴식을

설치미술, 조각상 등 단지 상징하는 예술작품 곳곳에 소나무 등 초록 식재 어우러진 쉼터도

을 누릴 수 있는 아늑한 휴식 공간을 완성했다.

'블루렛 가든' 내에는 온실이 있다. 입주민이 직접 작물을 재배하며 자연의 생명력을 체험할 수 있는 지능형 텃밭 공간이다. 반도체 마이크로센서가 설치돼 식물에 필요한 물을 자동으로 공급하며 수확 없이도 열매를 눈으로 즐길 수 있도록 조성됐다.

유리온실 내부에는 토마토 등 식용 작물이 자라고 있으며 햇살이 드는 나무 데크 위 벤치에서는 산책 중 쉬어가기 좋다. 도시 속에서 자연을 기르고 대화할 수 있는, 감성형 커뮤니티 공간으로 설계됐다.

단지마다 중앙에 조성된 '네이처 테라스'는 수공간과 녹음이 어우러진 계단형 휴식처다. 검은 석재로 마감된 곡선형 벤치와 물길의 조형물인 흐름을 만들며 옆으로는 원목 테이블과 의자가 놓여 입주민이 자연을 가까이에서 누릴 수 있도록 설계됐다. 네이처 테라스 옆에는 단지를 상징하는 조각상이 있다.

1단지에는 '삶-어울림'이 자리하고 있다. 단순화된 형상의 대규모 석조 기둥 위로는 다양한 기하 모양이 새겨져 있어, 빠르게 변화하는 도시 주거의 풍경을 상징적으로 표현한다. 현대 주거형태의 집합성과 그 속에서 공존하는 삶의 다양성을 하나의 패턴으로 담아낸 설치미술이다.

2단지에는 '숲의 향연'이 자리하고 있다. 나팔꽃을 닮은 조형물은 공존하는 숲의 이야기를 형상화한 작품으로 단지 곳곳의 녹지와 어우러져 감성적인 풍경을 연출한다.

3단지에는 '봄날의 동산'이 만들어졌다. 스테인리스스틸과 우레탄도색 등 다양한 재료로 제작된 이 작품은 꽃잎, 나뭇잎, 새싹 등 봄날의 생명력을 형상화해 따뜻한 감성을 전달한다. 보는 이로 하여금 마음속에 '봄날'을 새기게 하는 공간적 장치다.

자연미를 닮은 '페르마타 가든'은 일상에 쉼표를 더하는 정원이다. 울창한 수목과 야생화 식재 사이로 구불구불한 산책로가 이어지며, 곳곳에 놓인 암석과 그라운드커버가 숲길의 느낌을 극대화한다.

가든 한편에는 원형 구조의 벤치 쉼터가 배치돼 있어 햇살을 따라 천천히 걷다 머무르기 좋은 공간으로 설계됐다. 음악에서 잠시 멈춤을 뜻하는 '페르마타'처럼 도심 속 속도를 잠시 내려놓고 자연과 호흡할 수 있는 치유형 정원이다.

커뮤니티 시설의 경우 피트니스, 실내골프연습장 등으로 구성된 스포츠존, 독서실 및 북카페가 조성되는 에듀존, 어린이집, 게스트하우스 등이 들어서는 퍼블릭존으로 다채롭게 구성했다. 단지 내에는 다양한 테마의 놀이터가 설치돼 어린이에 대한 배려도 엿보였다. '하늘 위 음울과 멜로디', '상어가 사는 바다 탐험기', '구름 위 떠다니는 열기구' 등의 공간은 아이들로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었다.

/전지원 기자 jjw13@metroseoul.co.kr